

第18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6.3.14.~3.17.)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8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295
II. 제1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97
III. 제1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303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307
2.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309
3.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97
4.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	409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3월 14일 (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89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3월 14일 (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8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3.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8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6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의장 제의)
4.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 02분 개의) 니다.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봄의 계절을 시샘하듯 흰눈이 내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지도 조언과 정책 대안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상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은 1973년도 교단을 시작으로 본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보은교육청 교육과장, 청주교육청 교육과장, 청주중학교와 충북고등학교 교장을 거쳐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괴산 죽림초등학교 교장에서 전직한 김주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청주농업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한 이재신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다음은 본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관에서 승진 임용된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앞으로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과보고

(11시 06분)

● 의장 고규강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 의사과장 서광범

의사과장 서광범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의안접수 상황, 그리고 도의회 안건 처리상황과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3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1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청에 이송한 안건 중 도의회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처리된 총 3건의 조례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험위원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험실시 시기에 맞추어 개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과는 불부합 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8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3월 개최되는 충청북도의회 임
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6년도 지
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
취하시고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8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8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충청
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
정합니다.

제189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서는 2006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
고의건을 처리하시고 2006년도 제1회 공
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3월 15일은 2006년도 지역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3월
16일은 의안관련 현장방문 하시고, 3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
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06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10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지역
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가 제의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제187회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임시회에서 교육감으로부터 2006년
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
습니다.

교육현장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 애로사
항이나 현안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의
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직속기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였고, 이번 임시회에
서 2006년도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나 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내일 본회의를 휴회하고 소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회의록(별첨 2)

(끝에 실음)

4.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 12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신강택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영동 범화초등학교, 괴산 이담초등학교, 신풍초등학교 등 3개 폐교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동 범화초등학교 폐교는 1935년 개교 당시 토지 일부를 기부한 정석귀의 자녀인 정재수로부터 지역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매수요청이 있었고, 지역주민, 동문 등이 매각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괴산 이담초등학교 폐교는 괴산 불정농협으로부터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매수요청이 있었고, 지역 주민, 동문들 또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매각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괴산 신풍초등학교 폐교는 괴산군청으로부터 괴산군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령산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매수요청이 있었고, 지역 주민, 동

문들 또한 소득증대를 위해 매각을 원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현장방문과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진옥경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희,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별첨 2)
- ▶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별첨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3월 17일 (목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1.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11시 01분)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신강택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선진 방재 기관 연수 중인 관계로, 구명희 혁신복지담당관님께서 혁신업무 담당자 연수 강의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대헌 위원님 외 6인 위원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송대헌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에 6명의 교육위원께서 발의하신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의 수정이유는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범화초 폐교재산 처분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본 재산은 국선도 법연구회 이사장 모경숙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의 요구로 2006년 2월 28일자로 계약해지되었는 바, 현재 본 재산을 세계국선도연맹 영동 국선도교육원 대표 최낙규가 계속 사용하고 있어 교육청과 점유자와의 협의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 회기 중에 심의·의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범화초 폐교재산 토지 1만 700㎡와 건물 1,259㎡에 대한 처분은 금번 회기 중에 보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별첨 4)

(끝에 실음)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영동군 범화초 폐교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금번 회기에 심의·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이를 제외한 괴산군 이담초 및 신평초 폐교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것으로써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제출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웅,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200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별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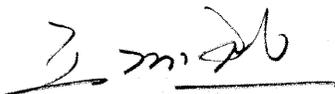
제1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6. 3. .

의 장 고 규 강 

위 원 진 옥 경 

위 원 김 남 훈 

의사국장 조 계 환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1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6. 3. 14.~3. 17.(4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3월 14일(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8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6. 3. 14.~3. 17.(4일간) 2. 2006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제안설명
3월 15일(수) (10:00)~	<input type="checkbox"/> 2006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본회의 휴 회
3월 16일(목)	<input type="checkbox"/> 의안 관련 현장 방문	
3월 17일(금) (11:00)	[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일 시 : 2006. 3. 15.(수) 10:00

·장 소 : 소위원회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0시 00분 회의시작)

● **의사담당 신현영**

지금부터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편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교육청 노재전 교육장님, 청원교육청 신도섭 교육장님, 보은교육청 박진규 교육장님, 옥천교육청 신영식 교육장님, 영동교육청 이명섭 교육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보고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신 지역 교육장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노재전 교육장님, 신도섭 교육장님, 박진규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되는 목적

은 지난 1월 10일 제18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교육현장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 애로사항이나 현안문제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 2월 15일 제18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직속기관장님들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2006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계획은 금년 1년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계획이 총 결집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므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로 교육위원님과 교육장님들 간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으로 같습니다.

참석하신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청주교육청 노재전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춘설도 따스한 봄벌레

사라진 싱그러운 계절에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규강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과 함께 한 이 자리에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규강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고규강 교육위원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충북교육이 전국 최상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건설적인 대안 및 견제, 비판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충북 교육가족 및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교육위원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한 깊은 안목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충북교육이 희망찬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으며 또한 발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되는 각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 내용들은 새로운 정보의 교환과 공유를 통해 충북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포함한 충북의 모든 교육가족들이 자기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으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규강 교육위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노재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순서는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보은교육청,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교육청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10분 이내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모두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주교육청 노재전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주요업무계획(별책)

● 의장 고규강

이상으로 5개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잠시 10분간 휴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 의장 고규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지금이 학년초라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해 주시고, 교육청별로다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세한 설명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청주, 청원, 보은 교육장님께서 지난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으시고서 아직 업무 파악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각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그 주요업무

6개항이 각 지역교육청 내용 공히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고, 교육장님께서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신 그 지역교육청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되는 질문인데요, 특화사업 설정항목을 보면 옥천교육청만 2개 항이고, 나머지 지역교육청은 전부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항목 중에서, 또는 2개 항목 중에서 교육장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 특화사업이 있을 겁니다, 물론 2개, 3개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만 반드시 타 교육청에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나름대로의 특화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특화사업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설정배경에 대해서만 지역청에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주교육청부터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특화사업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다영역 특수재능 개발

로 전 학년 전 학생의 교육스타화입니다. 에듀스타화로 영어로 해서 전임 계획된 것을 제가 이어 받는데 교육스타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회에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잠재된 재능을 계발시켜 주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중점적으로 할 내용은 그 독서교육 활동을 통해서 청풍명월 책사랑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책을 손에 갖고 독서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음으로써.....우리 청주가 교육문화도시이면서도 요즘 교육도시 특색이 퇴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시에 걸맞게 학생이나 학부모가 함께하는 독서운동을 15분 이상-도교육청 계획에는 10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5분 이상으로 해서 나중에 시민이 돼도 버스 안에서 손에 책을 들고 다니는 습관화를, 뭐 이게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니지만 금년도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기반 사회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 김남훈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특화사업 사업내용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특화사업을 설정하게 된 배경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청원 교육장님.

● 청원교육청 교육장 신도섭

청원 교육장 신도섭입니다.

청원군의 특성은 청주를 둘러싸고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역 여건을 활용하는 그 영재교실 활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이 발달하면 청주로 통합 흡수되고.....

이렇게 해서 그 권역별 중심학교를 설정해서 에듀넷과 동아리방을 통한 운영을 이렇게 해서 영재를 키우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에듀넷 동아리방을 만들어서 사이버 수업을 통해서 영재교육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로 21세기 인재육성의 가장 기본이고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배경으로 이런 숨은 재능을 발굴하고 특수 영재아 교육을 체계화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김남훈 위원

지역 여건을 활용한 두뇌 청원21 추진에 대해서 청원 교육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앞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청원교육청 교육장 신도섭

예

● 김남훈 위원

청원교육청 하면 제1항에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이미 전 도(道)적으로 청원교육청의 특화사업으로 아주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적으로 더 나가실까 했더니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21세기 두뇌교육에 더 역점을 두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청원교육청 교육장 신도섭

예, 알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다음에는 보은 교육장님 설명해 주세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입니다.

저희 보은교육청에서는 세 가지의 특색 사업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섬김과 효를 생활화하는 보은인 육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은이란 한자 자체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를 생활화하는 보은인 육성에 대해서는 근래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들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 시절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 인간 본연의 인간성을 중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효를 중시하는, 그러면서 우애를 중시하는 그러한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서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기은, 감은, 사은, 세 분야로 해서 각 학교에서 그 특색 사업으로 그 사랑의 카네이션 효 체험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두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 학교가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7개 학교가 모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 본연의 인간성, 인간성이 갖춰져야만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그 기본 기초정신에 따라서 보은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남훈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 옥천교육청 교육장 신영식

옥천교육청 신영식입니다.

저희들은 특색사업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 지역은 충절의 고장, 또 문향의 고장, 또 청정 옥천, 이것을 국민 전체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되면 중봉충렬제가 아주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고, 5월이면 지용선생의 그런 지용문화제가 전국적인 행사로 그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지역이 특히 또 대청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 지역으로 아주 그 자연사랑이라고 그러나요, 금강 물 보존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 특색사업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 10여 년 이상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을 교육적으로 뭔가 좀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아이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옥천 3사랑 교육을 통해서 진취적인 옥천 학생상을 정립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동 교육장님.

● 영동교육청 교육장 이명섭

영동교육청도 특색사업을 세 가지로 정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1교 1 전통음악입니다.

왜냐하면 영동은 3대 악성 중 한 분인 난계 박연 선생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영동 하면 딱 국악, 이런 이미지가 지금 풍깁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 국민의례라든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묵념, 이런 것은 전부 국악기로 연주된 것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도 국악단이 지금 여섯 군데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활동하는 것은 영동초등학교의 국악단하고 영신중학교 국악단은 이제 전국에서 1,2위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천중학교, 황간중학교, 황간초등학교 이래서 국악을 하는데 국악단원들이 지금 개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개학을 합니다.

자기들 연주할 때 연주활동 하고, 1주일에 2시간씩은 이틀씩은 학교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기·적성교육도 국악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0만원을 지원하고 저 자신도 사실 국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국악과를 지금 졸업해서 국악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동 특색이 전통음악 활성화, 1인 1악기 연주, 지금 이걸로 해서 추진하니까 이걸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는데 영동의 특

색사업은 1인 1학생 국악기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교 1 전통음악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훈 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교육장님들께서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해서 특화사업을 갖다가 여러.....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선이 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지역교육청에서는 다섯 가지씩 특화사업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특화사업이나 일에 욕심을 내다보면 그 전체를 다 추진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두 개 내지 세 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역교육청의 특화사업으로 꼭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그 의욕을 갖고서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특화사업 항목을 보니까 청주교육청에는 가장 중점되는 특화사업이 1항으로 넣었고, 나머지

교육청에는 3항 내지 2항으로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특화사업 중에서 교육장님들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특화사업 그 타이틀은 트레이드마크 형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의 제1항으로 넣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장님들 그 설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타당성 있게, 또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이렇게 설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교육장님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몇 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은 3월 1일자 발령받으셔서 갖고서 아직 업무파악도 다 하실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가지고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이런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갖고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교육장님, 또 과장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섯 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각각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특화사업이라든지 업무보고를 쪽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좀 질의하고 청주교육청은 인구도 충북의 42.5%고, 학교수도 170여 개 되기 때문에 청주교육청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재전 교육장님, 지금 우리 교육청 앞에 보면 학교폭력 추방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데, 대개 충북의 가장 큰 도시고 또 학생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청주에서 학교폭력 실태는 대략 어떠며, 또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그 스쿨폴리스 관계, 부산에서 7개 학교를 시범 운영해 갖고 성적이라든지 분석을 해 갖고 아마 입법화시켜 갖고서 스쿨폴리스제를 도입할 모양인데 평소에 교육장님, 스쿨폴리스 관계 견해는 어떠셨는데 말씀해 주시고, 여기 청주교육청에 청소년지킴이, 상담학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 사이에 서로 지킴이가 있어 갖고서 서로 폭력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은 상당히 참효율적이며 다른 교육청에서도 본받을만

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담 학부모 문제라든지 그것을 활성화시켜 갖고서 학생을 법과 규율에 의해서만 통제를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잘 지도해 갖고서 학생을 폭력 없는 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탁 말씀입니다.

청주교육청에서 사용준공검사제를 한다든지 새집증후군을 없애서 학생들이 불편이 없게끔 한다든지 이런 교육시책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 생각되고요, 지금 충북 학교 학생증가라든지 학교 신설 이런 걸 본다면 농촌지역은 자꾸 폐교되고 폐교 매각돼 갖고서 학교가 감소하지만은 청주지역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를 청주 쪽에서는 계속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장님, 도시계획과 학생증가, 인구증가에 대한 추정을 하셔 갖고서 이것이 개교전에 개학을 하든지 하면 학생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학생은 뽑아 놓고 학교가 완공이 안돼 가지고 운동장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남아 있어서 갖고서 그런 데다 학생을 집어넣으면 새집증후군 같은 것이 있어서 학생들 여러 가지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그래서 청주만은 그런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갖고 학교를 차곡차곡 이렇게 지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아니라면 그런 계획을 한번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전국 교육이 지금 부산교육을 전국 교육청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청이라고 계속 평가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산 교육감 시책을 여러 가지 한번 훑어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도시지역에.....여기도 63만쯤 되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입원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입원한 학생들을 그냥 방치해 갖고서 놓는 게 아니고 그걸.....물론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배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지만은 어느 학교의 수업 시수를 적게 마치고 병원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병원학교라는 것을 부산은 해 갖고서 좋은 호응을 받고, 정말 주민 속에 교육이 봉사하는 교육시책으로 자리 잡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착화시키고 우리도 해 볼만한 곳이 청주 정도는 우리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청원교육청에서 꼼꼼히 사이버 교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하고서 다음 번에 맞춘 후에 청주교육청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천교육에서는 요즘 세계화 정보화 교육의 목적에서 특히 영어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영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영어교육이라든지 제2외국어 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방송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텔레비나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데, KBS, FM 6시에 이지영의 굿모닝팝 같은 것은 상당히 내용이 충실해 갖고서 성인들도 많이 듣는 프로니까 그런 프로 같은 것을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 갖고서 들어 갖고 영어실력을 배양한다든지 이런 매체 이용방법도 중요하

고, 또 한 가지 혹자가 얘기하듯이 천재가 노력하는 자를 못 당하고 노력하는 자가 취미 있는 자를 못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취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좀더 좋은 사람이 게을리 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니까 반복교육, 취미교육을 통해 갖고서 학생들 실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해외에 교육시찰차 갔는데 코끼리가 꽃을 그리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큐가 50 이하라고 보는 짐승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정도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반복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쪽의 반복교육, 취미교육 쪽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교육장님들, 요즘은 모든 것이 세계화, 또 서양화됨으로써 그 음식도 웨스턴 스타일의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든지 이런 것이 애들 입에 맞기 때문에 그것이 성인병을 유발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전통 음식을 먹인다든지, 급식에 그

런 쪽의 식단을 짜서 학생들이 그런 쪽의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되찾고 우리 국민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에 청주교육청부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평소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위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또한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주셨는데 학생수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2%에 해당하는 9만 9,000명의 학생과 또 유·초·중 176교가 있다 보니까 청주에서 많은 사안이 발생해서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금년도 청주교육에 있어 가장 역점적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어겠다, 교육수요자로부터 믿음을 줄 수 있는,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 신나는 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력이 없는 학교가 되어 되겠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애정을 갖고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또한 상담활동의 강화를 올해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그 한 예로 상담자원봉사자를 어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문제학생, 학교별로 순회해서 의뢰적인 상담보다는 그런 학생을 찾아서 상담하는, 이래서 미연에 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학교지킴이 활동도 우리 도내 다섯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에 원평중학교가 유일하게 학교지킴이라고 그러니까, 학교폴리스를. 학교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도내 가장 우수 사례로 원평중학교가 퇴직교육자 한 분하고, 퇴직 경찰관 한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학생들에게 실 예를 보였습니다.

폭력예방 지도의 가시적인 것보다는 우선 학생들과 친근감을 갖고 생활해서 청소년활동이라든지 예의지도라든지 질서지도, 이렇게 함으로써 모범을 보임으로써 지도자로서의 학생에게 본보기가 됨으로써 아이들이 믿고 따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적인 지도가 돼서 좋은 성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초등학교 54개교와 중학교 28개교에 대해서 학교별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킴이, 경찰관이 안되더라도 지킴이 활동을 권장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자원

봉사제도, 각 학교에 구성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원봉사자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별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장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상담자원봉사자가 있어도 하나의 형식적인 조직이 되지 않고 그분들이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이 격려를 하고 또 그분들의 활동을 갖다가 조장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학교행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상담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학교에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전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은 단계적으로 정말 폭력을 예방하는 데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학교에 정말 학생들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이런 예방지도에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탁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검사제는 명예 학부모, 또 사용자 입장에서 사전에 준공검사를 하는 제도로써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6개 교가 공사 중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이 제도를 도입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공 기일이 촉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건축자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새집증후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거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과 교실 사용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거에 따른 교육을 또 실시토록 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증가로 학교설립에 따른 그 청주시 인구의 증가로 매년 신설학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우선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운동초등학교와 운동중학교에도 며칠전의 신문보도와 같이 문화재 발굴 문제로 공사에 차질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의견서를 받아서 설계 변경 및 공법을 받고서라도 개교일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공사를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송절중학교도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돼서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연도별 추진계획은 청

주시와의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학교신설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4년간.....그 말씀이 계셨었는데 2012년까지 올랑지구 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올랑지구까지 신설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부산교육이 뭐 작년도에 전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또한 전국을 선도하는 이런 교육이 돼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한 청주교육이 잘 돼야만이 우리 충북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청주교육청에서도 뭐 독서교육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병원학교 순회교사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이것을 입안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 교육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또 계획도 어떤 것은 추진하고 있고, 또 제가 질의한 그 방향 쪽에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래서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학생지킴이 관계가 지금 5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도내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럼 청주에는 몇 개가.....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청주중학교 1개교만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퇴직교사하고 전직 경찰들로 해 갖고 구성돼 있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예, 맞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개 복장은 과연 어떻게 하고 또 그 인건비를 어느 정도.....

만약 이게 입법화되어 갖고서 국가에서 전부 학교지킴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예산이 세수부족으로 해 갖고서 상당한 부분 뭐 4조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세수 4조 부족으로 해 갖고서 우리도 340억 이상 우리가 참 교육재정을 교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급재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교육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쥐 갖고서 그 지킴이들한테 대우를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거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대개 한 학교에 두 분씩 지킴이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대우는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교육부와 경찰청과의 협약사항에 의해서 제시된 사항으로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게 우리 도내 3개교 였고요, 현재 금년도에 2개교가 증가돼서 5개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복장문제는 경찰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복이 있고, 작년도에 12월달에 수안보에서 연수를 거쳐서 그분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수당은 2만원씩 해서 월 60만원으로 교육부 특별예산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한 분에 대해서 720만원에 1,400만원 정도 교육예산에서 부담하는 거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예

● 이기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첫째 복장서부터 경찰복장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교육기관에 들어와 있어서.....

물론 현직 경찰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걸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학부모들이나 민간인 복장으로써 서로 자원봉사를 해 갖고서 학생을 지도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장님, 지금 학생들을 컨설팅 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에서 복지사들이 지금 학교에 파견돼 갖고서 지금 아마 충주여중 같은 데가 시행되고 있는 애긴데, 청주 쪽을 보니까 그걸 학교에서 반대를 하더라구요. 그래 갖고서 어느 모 학교를 갔더니 거기서 안 한다, 이렇게 해 갖고서 분평지구에 어느 초등학교에 했더니 거기서도 안 한다 해 갖고서 결국은 못한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봉급을 전액을 부담하는 이야기인데도 밖에 분들이 들어와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지, 선생님들이 거부해서 그러는지 학교 당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학생지도에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해 봤습니다만은 그런 제도를 금년에는 지금 현재 하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청주 지역에서는 한 2년전인가 그때 사회복지사가 들어와서 컨설팅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그 경찰지킴이보다는 여러모로 더 자연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사항을 교육장님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장문제는 경찰관하고는 좀 다른 국립공원에 가면 그 국립공원 환경감사원마냥 노름스름한, 모자도 그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글썽요, 학생들이 조금 경찰복장의 인식이 어떤지 모르지만 봉사하는 그분들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치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추후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활용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우리 청주 관내에 원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복지사가 계속됐으면 했는데 금년 4월로 마치게 됩니다, 연구지정학교가.

청주시내 초·중학교에 지금 제가 알고로는 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 효과성이라는 것은 아까 학교폭력에서도 말씀드렸고 성희롱 예방교육 차원이거나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 그래서 원봉초등학교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 개별실을 두고 또 교실 한 칸을 사회복지사가 교육시킬 수 있는 그 장소까지 마련해 주고 또 학교의 시간표까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 4월이면 이게 마감되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는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사회복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교장회의를 통해서 이 취지라든지 효과성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 교육투자 우선 지역으로 수곡동하고 사직2동 여기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내일 와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도, 산남복지회관에 그 복지사들이, 거기서 학교 복지사가 아니죠, 그래서 저소득계층, 불우학생들의 복지 및 그 양극화 해소 문제, 또한 생활지도 문제도 이 분들이 지도할 것으로 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청원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교육청 교육장 신도섭

청원 교육장 신도섭입니다.

꼼꼼히 사이버 가정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군은 그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도시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도시화 과정에서 결손가정, 즉, 이

혼을 하거나 또는 조부모 밑에서 생활하거나 편부 편모 가정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주로 생활지도나 또는 장기결석, 또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학교 자체적으로 담당 교사를 정해서 이들을 면담하고 전화하고 또 메일을 보내거나 또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도해서 교사와 그 학생 간의 신뢰를 쌓고 지도함으로써 잘 적응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옥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천교육청 교육장 신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저희 교육청이 영어교과가 처음 도입되면서 시범학교 운영을 맨 처음 실시했던 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영어에 대한 흥미나 취미를 갖도록 하는 문제, 또 각종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

고, 저희들 사실은 원어민이 시·군에 한 명씩밖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면단위에서도 원어민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민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읍지역에 한 두 학교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각 학교 면단위까지도 저희들 군에서는 같이 만남의 시간이라고 해서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결혼을 해서 영어생활권에 있는 주부들이 지금 옥천에서는 한국어학당이라고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영어를 생활권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캠프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물적인 환경, 인적 환경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흥미나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강구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되도록 환경을 잉글리시존이라든지 각종 환경물 자체도 영어교육에 관련된 이런 물적 환경도 같이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쪽에 취미도 갖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교육장님들, 그 시·군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의 정서교육이나 학교 폭력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은, 선진국은 방송 프로그램을 교육당국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폭력물에 대한 방영, 이런 것에 의해 갖고서 학생들이 폭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매체와도 협의를 해서 갖고서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을 해 갖고서 학생들이 순화되고 정말 올바른 교육방향으로 교육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의 교육들을 담당하시고 또 앞에서 선도해 주시는 교육장님들의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거기

에 대해서 제가 짧막하게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저 제가 표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제가 받아들였을 때의 느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지나 이런 데서는 한글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교육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들, 업무계획 자료들이 전부 차례부터 시작해서 전부 한자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청주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하며 저도 이 업무계획을 3월 2일 부임해서 보고 영어와 또 한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한글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고려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요 제가 엇그저께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말이 많고 한자말이 많아서 구술체로 바꾸고 이렇게 지금 혁신적인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보다 더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또 신뢰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차례 우리 신조어, 영어신조어와 한자 부분들을 지적하는데요, 글썬요, 제가 행정질의 때 다시 또 질의를 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장님들을 뵈 수 있는 기회들이 그리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년초가 돼 가지고요 불법찬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큰 규모의 학교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학년초를 맞이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시면서 어떤 불법찬조금의 범위라든지 혹은 사례나 이런 것들 내지는 공문시행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청주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협약에서도 제가 학기초 되면 항상 대두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도, 또 제가 학교를 어제

까지 28개 학교를 순방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 것들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커다랗게 보도가 되고, 9시 뉴스에서도 나오고, 또 무슨 431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학교가 굉장히 서로 신뢰라는 것들을 강조하시고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성적에 매달리는 이런 체제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교사 와 학부모 간에 어떤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하고 매우 이런 뭐랄까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로 얽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발각될 경우에는, 예전에는 교장 선생님이 그냥 징계하는 경고 정도를 줬는데 이제는 교감선생님이나 관련 교사들을 전원 중징계하고 근평에 불이익 주고 이렇게 강경한 어떤 시책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외부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월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고서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일일이 드리기도 그렇고요.

상당구 용암동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1월 23일날 자신의 방에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셨는지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1월 23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교육청 단위에서는 없으십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지난번에 청주교육청에서 그런 사안은 아직 지난달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된 사례가 없어서.....

● 진옥경 위원

어쨌든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 가정이나 그 아이의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규명해 주시는 것이 이후의 어떤 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세상을 떠나면 오리무중이 되기 참 심상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지만은 유아무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성이라든지 민주성이라든지 전문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구성이 됐는데 제가 2004년도까지는 좀 체크도 하고 일선 학교에 제대로 학교운영위원들을 불법적으로 선출하지 않거나 혹은 교육공무원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을 위축시키는 이런 사례, 혹은 뭐랄까 교육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정하기를 요구해 왔고, 또 조사자료를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도 감독 하셨겠죠?

거기에 관련한 공무원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예, 공문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청주 1월달인데요 성추행, 같은 학교 여학생을 남학생이 성추행 해서 청주 서부서에서 그 연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 구석기 유적이 나와 가지고 운동초등학교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운동초등학교 이전이 85억 3,400여 만원이고, 또 운동중학교는 13억 7,000여 만원인데 충북일보에 보도나기는 운동초등학교는 30억 9,500만원, 중학교는 7억 7,1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서 매우 규모가 축소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 진옥경 위원

어쨌거나 이것이 지금 차질이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축소됐기 때문에 어떤 철저하게 그것의 원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좀 전에 담당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85억에서 31억 정도면, 그 정도 학급축소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앞의 사행성 오락기 문제들이 언론보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유치한 수준의, 알이 나오면 돈을 주고 송이 나오면 돈을 뺏어가는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뭐예요, 빠징코처럼 똑같은 동물이 나오면 와르르 쏟아져 가지고 그걸로 다시 돈을 바꾸어서 뭐를 살 수 있는 그런 오락기들이 학교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속하려면은 사실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 자원봉사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이용해서서 학교 주변들을 점검하시고 이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예,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학교 앞 사행성 오락기에 대해서는 이 다음 교장회의를 통해

서 또 공문지도를 통해서 학교에서 면밀히 계획해서 단속하고 또한 지금 말씀해주신 자원봉사 학부모제를 이용해서 그러한 것을 정화시켜서 근절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어머니들이 실제로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업소 주인에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 정도 하시고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내려주셔서 단속을 하신다니 이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들께서 그것까지 정화를 하시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 제가 부시장하고 면담과정에서도 위생과라든지 이런 학교의 불량음식도 겸해서 사행성 오락기 단속문제도 협의를 해서 정화토록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인 사항입니다.

출석부 번호 부여 시 남녀 차별 시정 및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요청한 적이 있

어요.

그래서 남학생을 앞에만 두고 여학생을 뒤에 하는 이런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것들을 이제 새 학기 되면 시정하도록 요청을 도교육청에 했고 청주교육청과 그 때 감사 나간 교육청에 했는데 제가 그래서 시행 여부를 알아보더니 청주교육청에서 공문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데 어쨌든 교육위원이라는 역할을 너무 축소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에 대한 권고사항이 과학실업교육과 2006년도 2월 21일, 전교조 2006년도 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렇게 해서 그 공문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10월 17일부터 닷새 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적을 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야 공교롭게 이것이 같은 날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것을 한 1,2년 이전에 학부모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한 것인데, 어쨌든 교육위원이 이미 이것을 이전에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에 들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그냥 조용하게 그것이 시정되는 것을 바랍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들을 앞으로 어쨌든

뭐 행정질의가 됐든지 아니면 업무보고에서 질의가 됐든지 간에 요청한 사항들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적시해 주시고 공문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6년도 3월에 청주시교육청 관내 학생들의 시정, 그러니까 결과가 되겠죠. 각급 학교는 어떤 양상으로 지금 시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학교별로 정리를 해서 좀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교육청별로 혁신에 관련한 인원을 공무원을 두 분씩 더 배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력을 하고 계신지 혁신담당 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과 방향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3월 1일자로 저희 담당을 1개 담당 해서 증원됐습니다. 혁신담당을 2명 증원 받아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혁신사업 추진과 교육안전망 구축, 몇 가지 겸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상적인 업무혁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혁신까지도 해서 각 학교로 하여금 혁신담당자를 부장교사로

하여금 검토토록 해서 학교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괄적인 업무를 지금 증원된 2명이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제가 교육장실로 불러서 혁신업무의 중요성, 그 가장 중요한 게 앞서 이기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산의 혁신사례 같은, 우리가 교육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면에서 사고의 전환을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행정직원의 연수 및 교직원 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앞장서도록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는데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지 최종적으로는 거기까지 이르러야지 이것이 정말 인원과 예산을 쓴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무엇을 바꿔줬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시고 그것에 근거한 어떤 혁신과제라든가 방향, 내용,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정규직에 관련한 문제로 2월말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교육청 관내에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이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각 교육청별로 다 마찬가지로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해 보니까 학교별로 한 23가지 종류의 비정규직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직종별로 또 근로일수라든가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고 부담금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학교별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정규직 인건비가 도교육청에서 따로 책정돼서 나가던 것이 총액으로 일선학교에 내려가면서 그 만약에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갔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비정규직 인건비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물론 돈은 조금 일당이나 이런 것들은 올랐지만은 그러니까 일하는 일수를 줄임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랄까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해서, 규정은 365일인데 245일을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식으로 2월말에 거의 다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교육청 관내에서 각급 학교의 계약 실태를 전부 조사를 하셔서 가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지고 문건이 분량이 많으시면 메일로 해서라도 저한테 전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양식을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이거에 의거해서 만들어 주시면 제가.....

교육가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당부 말씀으로 하고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체벌문제라든가 아니면 부당한 감정적인 어떤 대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청원교육청 같은 경우 지금 부강고등학교라든가 이름이 아주 적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지금 열린마당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부모들은 아이의 말을 우선시 해 가지고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교원평가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뭐랄까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불만이라고 할까요, 교사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교원평가제도 그 요구로 붓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사단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줄속이니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체벌, 그 다음에 학교 뭐랄까 심한 언어폭력이라든지 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혹은 수업의 질이 매우 떨어진 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부적격 교사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동 학산초등학교가 지금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요청을 하다가 오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학산초등학교에서 교육청을 경유해서 보고서가 나왔을 겁니다, 시범초등학교를 하면서.

물론 작은 규모의 학교이겠지만은 그 보고서 양이 많아도 좋습니다. 그 보고서를 어떤 항목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청에 대해서는 아직 시범단계이고 또 당시에 굉장히 교사단체들이 반발이 컸죠. 그래서 시범학교 거부를 그냥 교사서명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한 것이 교사단체인데, 이번에 이제 그 시범학교

실시결과에 대한 그 논평을 보면 그것이 시범실시가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서 절차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저는 원인제공은 교사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도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것이 최대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의 질을 제공하고 또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체벌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예방대책으로써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영동교육청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학생들이 컨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들이 되고 있고 한데, 제가 나름대로는 이리저리 공리를 하고 고민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교육장님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못 드리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학습준비물 1인당 2만원씩 책정되도록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책정되도록 지도하신 공문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 학교 예산 세우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하실 건지, 아직 안하셨다면은 그 예정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도에서 농산어

촌 무슨 특별 대책을 위해서 예산들도 배정하고 하는데 군청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특별히 받으시는 부분들이 따로 있으신지.

그러니까 교육경비 무슨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군청이나 도를 통해서 받으시는 추가 예산지원이 있으신지 각 교육청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생 보조교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시범학교를 2006년도에 청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보수를 받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예,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보수로 학교에서 책정된 예산이 있고, 그래서 청주교대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청원 지역에 저소득 계층 학생을 멘토링해서 지도하고 거기에 대한 교통비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요, 요새 대학생들이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이런 데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여건이 있지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요새

아이들이 현금을 좋아하고 이런 추세인데 교통비 정도로 몇 명의 인원들은, 시범학교 정도의 인원들은 확보하실 수 있지만 내년도 전면 실시에 대한 추가 인원이랄까 이런 것들이 과연 확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계획이 세워지신 후에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특색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학력제고 및 영재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효 사랑에 대해서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색사업 선정을 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시는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그 특색사업을 한 부분의 대개가 지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에서 두 가지 특색사업이 신규로 들어왔고, 옥천에서 하나, 영동에서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속사업에 관한 그 부분은 2005년도 중간 평가한 게 각 교육청별로 다 돼 있죠?

(관계관 석에서 “예, 있습니다.” 하고 말함)

이 중간 평가한 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학교폭력 관계에 대해서 이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활용이 우리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교육장님들은 지역 교육의 수장이십니다.

학교현장을 벗어나 학생들이, 또한 그 학생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어떤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청주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청주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과 지역

사회의 연계된 그런 교육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네트워크 구성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단계입니다.

금년도 지난주 금요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교육예산 지원보조금이 교육부에서 차등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93억, 우리 도에는 31억 6,800만원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여기 참석한 교육장님들도 지역 지방자치단체죠,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교육지원 사업, 활동, 또 예산 전입,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하고 하고 간략하게 하는데, 우선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화두인 것 같아요.

혁신평가도 하고 인원도 배치하고 뭐 이러는데, 이 교육장님들이 신년 들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이렇게 교육위원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뒤에 관계관도 있습니다만은 하는 뜻은 우리 지역의 교육현안들을, 지역의 실태를 위원들이 좀 알고, 또 우리가 지도하기보다도 참고될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교육에 반영되고 해서 보다 우리 충북교육이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이런 귀한 시간을 여러 번 가겠습니다.

때로는 지역교육청에 가서도 듣고, 때로는 연마다 해마다 이렇게 모셔서 듣고, 제가 연말에도 들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우리 하나의 혁신과제, 혁신 차원에서 이 시스템도 우리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할 적에 주요한 것은 집행청에 있는 교육국장이나 관리국장을 참석시켜서 여기서 논의되는 주요한 이슈들이 있다면 그 분들도, 충북교육을 전체 계획을 하는 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끼리 알고 논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집행청에 있는 교육국장이나 관리국장을, 양 국장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여기 논의되는 것들이 교육시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거. 보고 시스템 쪽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집에 아마 10권도 넘을 거예요. 봄, 가을로 교육청에서 이것을 주다보니까 버리기는 뭣하고 좋은 자료를 그냥 싸놓다가 청원서부터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계획서가 10권도 넘습니다, 이렇게. 한 4년 동안 모아 놓은 것들이.

그리고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우리 도에 서의 주요업무계획이 나가면 그 틀에 의 해서 작성하다보니까 좀 획일화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도의 주요업무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맞도록 시기라든가 목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지역교육청의 계획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지역교육청 여건에 대한 특수사업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수시책들이.

그래서 대동소이한 것은 도에 있는 그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시기, 목표, 목표량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잡히고 횡수만 조금 달라질 뿐이죠.

이것이 학교에 내려가서는 학교가 학교 교육계획 속에 구체화되는 것이죠. 더욱 한 단계 구체화돼서 사실은 서랍 속에 있는 학교운영계획서가 아니라 그 학교운영 계획서 한 권만 가지면은 그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서부터 전체가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우리 학교운영계획서가 되라고 늘 장학지도 나가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도에 있는 기본계획이 지역교육청으로 왔을 적에 어떻게 소화돼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지금 여기 여섯 권

만 놓고 봐도 이게 너무나 획일화 된.....

그럼 획일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보고하실 적에는 우리 참고자료로, 부록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A4용지 한 장이라도 좋죠, 주요업무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계획,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학력제고면 학력제고, 좀 중요한 부분 A4용지 한 장 정도. 생활지도면 생활지도에 핵심적으로 하는 주요 A4용지 한 장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5장이 됐든지 6장이 됐든지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 응답도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한 권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한 구절, 한 문구 이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능률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개선할 점은 국장이나 이런 거 참석하는 건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보고 시스템 하시는 지역 교육장님들도 이렇게 큰 부분을 하지 말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학력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항목별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A4용지 식으로 설명을 붙여서 이런 보고 시스템이 돼야 이게 좀 시

간이 능률적이지 아니겠는가. 뭐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보니까 대충 알아요. 무슨 내용이구나, 무슨 내용이구나. 그리고 또 이 계획서 자체를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안하면서 저도 간략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뭐 검토하자는 제안으로다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스템을 보고하는, 주요업무 계획을 하는 패턴을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서 간단히 청주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색다른 것 하나만.....

같은 것 빼고 쪽 보다보니까 눈에 딱 띄는 것이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영이라는 게 페이지 10에 딱 띄네요, 대학생들을 보조교사제로 쓰겠다는.

그 계획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청주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이 대학생 보조교사제는 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부산에서 시도를 해서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도 양극화 현상 해소, 이런 목적으로 금년도에 저희 본도 교육청에서 추진해 갖고 작년도에 대학교 총장들과의 협약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 청주교육대학, 서원대학, 충북대학은 아

직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교원대학 이렇게 해서 청주, 청원 근교에 있는 대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봉사한 실적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학점취득과 동시에 학생들이 멘토한 학생을 멘토링제로 해서 학력을 부분적으로 지도해서 이 학업성취도를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이 진로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지도교사의 역할을 대학생으로 하여금 역할 대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예산까지 수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4월달부터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여쭙봤던 겁니다.

우리가, 교육위원님들이 쿠바에 갔을 때 생각이 납니다.

사회주의국가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사랑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교실당 선생님이 두 분이 다.” 하고 사랑을 해요. 그래 들어가 봤더니 둘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정식 선생님이고, 하나는 교생이에요. 그런데 그 교생이 거기에서는 4년제에서 4년간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4년 동안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배우고, 우리로 말하자면 보조교사죠 말하자면, 그걸로 한 학급에 교사가 둘이라고 했던 것이 벌써 몇 년 전에 쿠바 사회주의국가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부산에서 각광을 받고 전파가 되는데, 이 제도가 우리 청주에서 시발점으로 해서 희망자뿐만 아니라 한 학급에 두 교사를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자가 몇 회 해서 몇 학급 해 가지고 선전 효과로 하지 말고, 청주시내의 모든 학교, 모든 학급에는 한 학급에 교사가 둘이다, 쿠바가 잘 하면 쿠바 것도 따라가야죠. 그래서 벌써 3년 전에 자랑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브리핑하는데 들쭉 있어요. 하나는 선생님이 고 하나는 교생인데 한 학급 두 교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청주교육청에서 의도를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한 학급 두 선생님 제도, 이렇게 만들어야 부산하고도 차별화가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혁신과제 여러분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본청 교육감이 보고한 혁신과제도 보고, 청주 것도, 각 시·군마다 혁신과제가 있습니다.

뭐 다 거두절미하고요 결국 단위 학교에 있는 선생님부터, 물론 자꾸 올라갈수록 바뀌야 되지만 바닥부터 혁신이 돼야 되요. 바닥의 생각부터 혁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잘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고, 또 잘못됐다, 지금까지 관행이나 모순이 잘못돼서 좀 바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바뀌나가는 이런 것을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새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혁신인데, 지금 강조되는 것이 청주 교육청 물어보세요. 각 학교마다 1학교, 1교에 혁신과제 하나 선정하는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계시는지.

조그만 거라도 우리 학교는 이거 하나만은 고쳐보자, 이런 주제들을 학교별로 선정해서 그 학교에서 1년 동안이든지 2년 동안 노력을 하는 그런 시책들을 하고 있는지. 그 주제 선정은 과정, 프로세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주시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청주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과제는 그 학교 단위의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토록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교실수업에 선생님

들이 열정을 갖고 교실수업에 참여하기라든지 또는 환경개선 문제로써 휴지 버리지 않는 학교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과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예, 됐습니다.

혁신평가가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죠, 많이 혁신도 되고. 그래서 여쭙본 겁니다.

청원 교육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기회로 해서 훑어보는 계기가 되었을 걸로 압니다.

뭐 전부터 해 온 교육장님들은 머리 속에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 여쭙볼 수밖에 없네요.

청원이 커나가는 도시입니다.

지금 오송이라든가 오창이라든가 주변이 우리 행정복합도시 가깝고 해 가지고 주변이 활기있게 커나가는 그런 도시형태고 인구가 많이 늘고 아파트 주변이 커나가고, 또 분기역이 거기 생기고, 가장 변화를 많이 겪어야 되고 발전이 엿보이는 시·군 중의 하나가 청원군입니다.

그러면 이런 급변하는 변화, 여기에 대한 최소한도 도에서 할 게 아니라 군 나름대로의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 파악이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됐으면 다음에. 있으면 보고해 주

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교육청마다 가지고 있고 추진을 하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하세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신도섭

청원 교육장 신도섭입니다.

그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신설 및 증설학교가 있고요,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만수초 신축 공사, 또 이전계획, 또 이런 것들이 쪽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 수용계획에 의해서 장기계획에 의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세목은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제가 여쭙보는 요지는요 뭐 오송도 하고 학교, 도에서 다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생각하는.....

그래도 기초는 청원교육청에서 나온 기초를 가지고 청원교육의 교육 플랜이 도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 도에서 다 알아서 여기 학교도 세워주고 여기 다 하고 계획 짜 주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청원 교육장으로서는, 수장으로서는 우리 중장기계획, 청원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없으면 뭐 앞으로 생각하실 문제고, 그것을 여쭙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신가. 그런 중장기, 여러 가지 있죠. 중장기는 학교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문제입니다.

● 청원교육청 교육장 신도섭

예, 아직 그 생각을 깊이 못했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송대현 위원

아니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 시·군이 큰 변화가 없는 데는 해오던 대로, 크게 안해도 되지만은 청원은 급변하게 변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로, 교육은 미래에 대한 대비거든요. 대비니까 청원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그런 중장기 계획의 설계를 청원 교육장님은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청원이 청주 변두리를 싸고 있어 가지고 이게 참 애들이 많이 청주로 빠져들거든요, 청주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 가지 일거리 문제도 있지만 뭐 교육의 문제예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키려면 질 높은 학력을 높여주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학교를 지키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내고장 지키기니 뭐니 다른 말 많이 합니 다만은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학

생의 질, 학력을 높여주는 거. 그런 쪽인데 거기 청원교육청의 개인차에 따른 학력의 개별화 관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학력제고책임제도 강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있어요. 학력제고책임지도제 강화에서 단위학교 중심의 학력관리제 강화, 장학사별 학력제고 담당학교 책임제 지정 운영, 국민기초 보장을 위한 학교 교육의 책무성 강화, 이 세 항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거기 청원교육청 뿐만 아니라 내년 보고는 이런 보고를 하지말고, 이런 보고업무 형태를 하지말고 학력제고책임제 타이틀 강화라는 밑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좀 A4용지 한 장 만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야, 청원교육청에서 학력제고책임제 강화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서로 진지하게 논의돼야 우리가 모임의 뜻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것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사례로 해서 우리가 내년에 시스템을 바꿔보자 하는.

이것만 갖고 어떻게 압니까.

학력이 뭐 책임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학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책임제라는 말이 근사합니다만은 속빈 강

정이에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 책임제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보은 교육장님 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한 말씀만 드려보죠.

보은이 과제는 제가 알기로는 학생수가 주는 게 제일 과제예요.

왜 이렇게 자꾸 학생수가 줄어서 단양보다도 적은 시·군이 돼버리고 교사나 또 학생수나 또 예산이나 단양보다 처지는 것이 이런 지역적인 과제로 알고 있는데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역 자치단체라든가 학교 뭐 지역주민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은의 학생수 하고 보은을 좀 발전시키는 게 이게 아마 큰.....

여기서 보은 교육장님으로서는 과제인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소인수 학교, 소인수 학급.

한 학급에 여덟 아홉 이것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면서 학력을 높이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저쪽의 특화사업이나 특색사업으로.....

제가 아는 한 이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도 비슷 비슷한 가운데서 특색, 정말로 특출한

것, 뛰어난 것을 특색사업으로 씁니다.

우리 교육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비슷한 것에서 뛰어나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게 특색입니다.

특화사업,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둔다, 역점.

IT에 역점을 두어서 IT 특화산업, IT부분에 예산도 많이 협조하고 뭐도 많이 하고. 뛰어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 이게 특화사업입니다.

노력 중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서 교육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항목인데 자꾸 특색, 특화 딱 혼동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지만은 어휘적으로 그래요.

지금 보은교육청의 소인수 같은 것을 어떻게 역점을 두는 특화사업으로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참고의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야, 우리가 소규모 학교, 작은 학생인데 소규모 학교에 우리가 밀도 있는.....” 요즘 가정과 학교와 학생간에 가정학습에 컴퓨터를 뭐라고 하죠, 사이버 학습체제 이 시스템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토요일휴무제 아니에요. 사이버 학습을 통해 가지고 과제 체크하고 이런 것을 우리 보은교육청의 특화사업 주제로 선정해서 우리는 소인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과 학습과 학력을 위해

서 정렬을 바치니까 우리 군수님 돈 좀 주십시오, 10억만 내 놓으시오, 우리 보은에 인구 안 줄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뭐 참고 말씀입니다만은 학생수 감소하는.....

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맨트해 주시죠.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입니다.

제가 원래 출신이 보은 출신입니다.

보은에서 약 30년 가까이, 40년 교육생활 중에 30년 가까이 생활을 했습니다.

보은에 한창 학교가 많을 때는 초등학교 36개 학교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16개 학교입니다.

학생수도 면단위 지역에서 1,000명이 넘는 학교가 보통 있었는데 지금은 읍에 있는 삼산이나 동광 학교가 600명이 채 안됩니다, 두 학교 각각.

그래 원인이야 떠나는 사람들한테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늘 교육장이 되기 전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그 농촌이농현상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제가 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아직은 그것을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얘기는 나눴습니다.

이제까지는 작은 학교와 큰 학교로 흡수되는 현상이 뭐 우리 보은군 뿐만이 아

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보은 지역도 그 보은읍이 보은군의 중심지입니다.

그래 인근 학교에서 주민등록을 옮겨가면서 보은읍에 있는 삼산학교나 동광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학원 같은 것이 읍에 밀집해 있어서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게 가장 많습니다.

거기다가 사립 학원 같은 데서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아이들한테 특혜를 줍니다. 그 시골에서 읍으로 다니는 아이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기 살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아침에 학원 차량으로 읍으로 실어오고, 그 학원에서 특기·적성 교육을 하고 오후에 집에 갈 때 실어다 주고 하기 때문에 어른 입장에서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늘 가슴아프게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흡수되는 것을 역으로 큰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작은 학교로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 중입니다.

다른 데서 외부에서 끌어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일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어쩌다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끌어들이려면은 학부모

들이 조건을 답니다, 혜택을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큰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 보은 관내 아이들 중에도 큰 학교 아이를 어떻게 작은 학교로 끌어와서 최소한 폐교만은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적인 것은 그 특기·적성을 학군 단위로 묶어 가지고 학교에 있는 버스를 활용해서 그 작은 학교에서 하는 방법, 또는 폐교를.....

지금 내년도에 1개교가 폐교대상입니다. 전교생이 16명입니다. 그 폐교되는 학교를 그런 특기·적성 군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따르겠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실무자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연구를 해서 방법이 있으면 제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대헌 위원

영어교육을 많이 한다는데 영어교육, 지금 글로벌시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원어민 쪽이에요. 여러 가지 과거에도 우리 영어 많이 했지 않습니까. 회화하고 뭐 문법하고 영어 중요성 많이 알고 하는데 요즘 경제가 나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원어민을 써서 일찍 말문을 트게 해볼까 하

는 것이 이제 학부모들의 관심사거든요. 더군다나 진천이 저기 스다보니까 이게 또 한층 보도되고 하니까 고조가 됐어요. 진천에 외국어 연수원이라는 것은 워낙 제한된 수이고 참여수가 적고, 결국은 지역 교육장님들이 관내의 학부모들의 욕구를 어떻게 풀어줄까 하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거에 생각지 않던 진천 어학원이 생김으로써 야, 학부모가 열망하는 외국인과의 회화문제를 어떻게 하나, 아까 다양한 거하고 거기 뭐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와서 하는, 보조로 쓰는 부분도 좀 좋고. 그래서 가끔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지역사회나 어느 지역단체에서는 자기 학부모들이 원어민을 강사를 구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영어회화 가르쳐 주시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말을,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영어문법이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을 강구하니까 아까 했던 그 외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는, 외국에서 오래 있던 분들의 그 활용도 좋고, 또 지역사회에서 열의가 있다고 하니까 지역사회하고 협의해서 우리 준수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원어민을 좀 확보를, 혹은 자체 하는 것 좀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다양한 게 많더라구요.

아까 영어 뭐 말씀하신 것 보니까 핸드북서부터 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원어민을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영동 교육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이 광역시를 빼고, 광역시는 작년엔 했으니깐, 부산이 1등 했잖아요, 빼고 올해 평가받는 해라고 해요.

평가는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을 잘 받아서 상금도 탈수록, 상장도 탈수록 다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감이나 도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초·중·고, 또 지역 교육장님들 수고의 결실입니다.

또 그 부분을 많은 교육수요자들은 “야, 충북이 예년에 잘해 왔기 때문에 평가도 잘 받고 상금도 타고 이렇다.” 올해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들은 이렇게 충청북도 올해 평가를 받는 해를 대비해서 우리 어떻게 특별한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하기보다는 일환의 준비라든가 마음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가. 교육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뭔가라도 잘 했던 부분을 잘 다듬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잔뜩 해 놓고서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여쭙보는 겁니다.

● 영동교육청 교육장 이명섭

영동교육청 교육장 이명섭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지역교육청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지역교육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교육이 발전하려면 학교교육이 발전해야 된다고.....

역으로부터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기 금년도에 계획을 좀 세우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학교에서 그냥 무조건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러 학교 교감들하고 교감하고 행정실장하고 불러서 3명씩 팀을 이루어서 교육장하고 직접 면담, 관리과장, 교육과장, 또 혁신담당자, 장학사 1명 이렇게 해서 3명씩 팀을 묶어서 교육청에서 좌담회식으로 그걸 받았습시다, 학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교육청이 또 보는 눈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중점, 특색사업, 혁신문제 이렇게 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주제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요새

는 입체평가를 하기 때문에 영동교육청이 될지 충주가 될지 옥천이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지정하는 데 가서 지금 계획서 내 놓고 여기서부터 다 훑어보거든요. 여기 다 봅니다. 평가 체크리스트 해서 항목을 다 보기 때문에 이 평가 주요 업무계획서 하나의 문구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다듬어보고 해야 된다는 시점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 업무계획서에 외래어가 하도 많고 수식어를 문자를 만들어놔서 지적했더니 올해 그것은 없어졌네요. 그냥 외래어 투성이 잘 이해도 못하는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곳곳에 지적했더니 올해 본청부터 없어지니까 하부기관 지역교육청에도 싹 없어지고 필요한 몇 군데만 괄호 안에 묶어서 넣은 것, 이제 개선됐거든요.

지금도 제가 보면, 일일이 작은 문제 같지만 또 수식어가, 뭐 깔끔이니 뭐니 하는 수식어가 좀 정리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교육장님, 언제 한번 한가하시면은 이렇게 한번 넘겨 보세요. 그거 안 넣어도 되는 수식어를 왜 넣었는가.

그 수식어가 내용하고 맞으면 넣어야죠. 그런데 내용하고도 동떨어진 수식어. 좋은인데 다 좋자고 하지 어떤 것은 나쁘

자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뭐 수식어. 이런 등등 해서 한번 교육장님, 우리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청에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 참 반가운 소리입니다.

물론 영재를 잘 키우는 것도 소중하지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기초학력을 지도해 줘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력을 배양해 주는 게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그 동안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 학교별로 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갑니까, 아니면 줄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하나 주시고, 추세가 어떤지 좀.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청주교육청 노재전입니다.

기초학력부진 학생은 저희들이 감소하는 추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학기초 되면 그러한 인원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지도를 해서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매년 그 국가수준의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를 10월달에 하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4,5,6학년에 가서 담임 선생님들이 책임지도를 해서 중학교에 진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아까 이기수 위원님께서 코끼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림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얻은 교훈이 반복을 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능한 아이들이라도 선생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정열이 있으면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청주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들께서 이것 하나만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한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5일제 수업이 확대되는 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주5일제 수업이 2회로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인가 자꾸 양극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도 가고, 체험학습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한다든지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는 토요일인데도 등교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학교별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특기·적성을 한다든지 방과후 무슨 비슷한 프로그램을 갖는다든지 그런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청주 교육장 노재전입니다.

지난 3월 11일날 첫 번 맞이하는 주5일제 토요일무일에서 저희들이 그걸 다 파악을 했습니다, 개별로 프로그램.

그래서 전혀 등교치 않는 학교도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학교마다 다니면서 도서실을 토요일에 개방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책이라도 읽을 수 있는, 이렇게 체험학습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책을 읽는.....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들의 근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걸 청주 부시장님하고 다음 주에 면담을 해서.....

부산서 이제 그게 성공사례인데 부산은 구청에서 공익요원들을 오후에 출근해서 오후 8시까지 근무제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근로용역지원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그런 저소득층 계층의 자녀들의 대책 문제를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노는 휴일날 출근하셔서 수업을 지도하실 수는 없을 테고 지금 도서실이라든지 또는 컴퓨터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보조원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생활지도도 되고 학력신장도 되고 또 맞벌이 부모에 대한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못받는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계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서 학교 명예 실추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대개 축소하거나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이것을 탁 터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상부에 보고하기가 민망하니까, 또는 지역사회의 여론으로부터 좀 덜 몰매를 맞기 위해서 축소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터놓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원교육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는 몇 년 전부터 청원교육청에서 해서 참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지역의 몇 군데 학교를 돌아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화장실 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은 지가 오래된 데도 있고 또는 공사가 부실한 데도 있고 해서 해동기가 되니까 파이프가 터지고 해가지고 아주 화장실을 수리해야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수리비가 대단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호텔급 화장실을 여러 개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냄새가 나고 잘못된 화장실을 없애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다보니까 뭐 치장도 하고 그림도 붙이고 여러 가지.....

거기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냄새가 나고 터지고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화장실을 쓰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또 양극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 교육장님께서 잘 보셔서 그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균등하게 해 가지고.....

어느 한 쪽은 참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기서 뭐 영어단어도 공부하고 신문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쾌적한 것도 좋지만 냄새가 나고 터져서 불결한 화장실이 없어지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떠세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신도섭**

청원 교육장 신도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교육청 교육장 신도섭**

예, 고맙습니다.

● **이상일 위원**

보은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2,3년 전에 감사 갔을 때도 사랑의 꿈나무 손잡기 자매결연을 맺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경제가 참 어렵고, 특히 농촌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손길이 자꾸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은의 현재 상황은 어떠신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각 학교별로 저희들 나름대로다가 그쪽을 갖다가 하나의 실적 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뭔가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바로 내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충주지역에 아주 시내학교인데 밥값을 못

내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몇 분들을 해서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도와줬는데 전화가 와요. “아, 저기 어려워서 금년에는 좀 자기를 빼 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해서 점심을 굶는 그런 학생, 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도 못 들면서 결손가정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옥천교육청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장애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특수학교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학부모 요청에 따라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편성하기도 하죠?

● 옥천교육청 교육장 신영식

예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특수학급은 학급당 7명이 되기도 하고 10명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특수학급 편성된 데 가서 보니까 그 중학교만 돼도 등치가 어른 등치입니다.

굉장히 큰데, 화장실 출입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를 선생님 혼자 하려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옥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 옥천교육청 교육장 신영식

옥천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저희 관내에는 6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교사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보조원을 전부 다 두고 있습니다.

특수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보조원을 또 별도로 두어서 그 아이들을 별도로 관리를 같이 이렇게 도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그 보조원 인건비는 학교에서 나갑니까?

● 옥천교육청 교육장 신영식

아닙니다.

도에서 예산도 배정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가보니까 그게 잘 안돼서 자식 잘못 든 죄인지 부모들이, 부모들이 나와서 그것을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부모가 그러면 좋은데 생활의 여유가 없는 부모들은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데.....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시설면에서도 돈이 들다보니까 그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하셔서.....

어떤 데를 보면 그게 안돼 가지고 학생들이 휠체어를 몇이서 들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야, 말뿐인 특수학교지 이래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좀 예산이 어렵겠지만 각별히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옥천교육청 교육장 신영식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마지막으로 영동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가모 운동을 옛날에 좋은 운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교육청 보고 때마다 아가모 운동이 나오는데 사실 너무 요 근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물자를 낭비하고 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운동화 하나만 잃어버려도 찾느라고 집을 못 갔는데 시계가 없어져도 그만, 그리고 몇 분들의 학교의 기능직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긴데 갈수록 폐품, 버리는 물건 쓰레기가 무지하게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도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은 쓸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 복도에 아가모 이름이 붙은 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 학교에 가보니까 이 함이 창고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요새 풍요롭지만 어려서부터 쓸 수 있는 물건을 아끼는 것, 그리고 학급도 어떻게 학년이 바뀌면 어떻게 쓸 수 있는 물건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전부 학부모들이 사다 나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하기로 한 아가모 운동, 그거 어떻게 영동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영동교육청 교육장 이명섭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육청에도 아가모 운동 상자가 세 개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렇다 보면 저기 농촌학교는 몰라도 도시학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쓸 수 있는 활용품, 그것을 팔아 가지고 불우학생돕기라든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과거에 어느 학교는 그거로다가 상당히 모은 돈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없다고. 그래 이것으로 봐서 이 운동이 귀찮고 싫은 운동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교육장님, 한번 일선에 순시 나가시거든 그 아가모 통이 잘 제리에 있는가, 또 폐품이 제대로 분리가

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 환경보호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거, 못 쓰는 거 분리해서 수거하는 거 우리 자연 살리고 나라 살리는 길인데 기왕 아가모 운동이라는 좋은 운동을 만들어 실천하는데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참고되는 말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의 목적이 우리 법에 보편은 전문성 자율성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지역의 각 교육청별로 특화사업이니 특색사업을 하시는데 농촌이나 도시나 어촌에 따라서 교육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충청북도도 11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화사업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을 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면 단위의 학원도 없고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특기·적성교육을 어

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교육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강사를 어떻게 초빙한다든가 이런 방법, 방법적인 것은 교육장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자치가 이게 실현됐으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 주시면 되겠고, 교육장님들은 법적으로 교육장님들의 권한은 없습니다, 법으로 지정해 준 게.

교육감이나 학교장이나 인적자원부 부총리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해 준, 분장사무로, 또 재 위임해 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교육장이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두고,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교육장님들의 권한 위임해 준 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권한이 부여된 겁니다, 조례로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알고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장님 소신대로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을 올바르게 수요자에 맞는 교육을 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시책을 여기를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시책이 어떻게 해서 수립이 됐느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거진 반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 산업시대에서 지금 지식정보화 글로벌시대로 옮겨가기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10년, 20년 후에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인재를 육성을 하기 위해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창의력, 또 수월성 교육, 특기·적성교육, 또는 외국어 교육, 또는 인성교육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지금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는 소품종 대량생산을 했습니다, 농경시대에, 산업시대에는.

그러나 지식정보화 사회에는 다량품종 소량생산으로 가고 있다. 또 하나는 지식과 정보가 소멸 창출되는 게 하루가 다르게 소멸 창출됩니다.

따라서 암기식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고, 인간의 창의력을 길러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됐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

또 한 가지는 특기·적성,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계발 신장시켜 주는 것만이 그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해서 한 차원 높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게 아니냐.

이래서 교육의 시책을 정한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 교육행정에서 학교의 교육환경, 또 지원 조장하는 역할, 이런 모든 역할을 교육현장에서 해 주시는 겁니다, 교육장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전 교육감님도, 그리고 현 교육감님도 도서관을 많이 확충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이 가장 중요한 건데 많은 책을 읽고 비판적인 사고, 거기에서 지식의 습득, 인성의 도약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5시가 되면 도서관은 문을 닫게 됩니다.

타 시·도와 뭐가 차이가 있느냐, 타 시·도는 경기도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밤에도 평생교육학습 차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기·적성, 개개인의 계발 신장시키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청주시나 모든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4시 반이면 문을 닫는 학교가 많습니다.

사교육비 줄인다는데 4시 반이면 문을 전부 닫으니까 학생들이 학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제가 간간이 4시 반에 학교를 돌아보면 거진 반 거의 퇴근했습니다. 물론 퇴근하는 거 좋죠.

그래가지고 창의성이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특기·적성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말로만 창의성 교육, 특기·적성교육, 사교육비 절감, 시책과 행동이, 시책과 모든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 교육은 안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도서실 돈 4,000만원 이상씩 전부 쥐가지고 해 놓고 그 학교 학습시간 이외에는 전혀 사용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을 교육장님들께서 어떤 방법으로 면지역 단위는, 또 리지역 단위는, 읍지역 단위는 특기·적성과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했으면 될까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 이제 지사를 나올 분들이나 시장을 나올 분들, 이런 분들이 의장실에 들립니다.

제가 타 시·도 얘기를 합니다.

원어민들을 이렇게 대 주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사서교사를 대주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계는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구걸하는 행색을 해서는 안되고,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지역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환경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그러니까 지역단체장들도 자기 지역의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책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기관장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라도 보은군 같이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인구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을 원어민을 배치하면 타 시·도에서 오지 않을까,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는.

그래서 이제 우리 기관장님들이니까 교육과장님과 관리과장님이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하시고 교육장님들은 커다란 외부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발전, 학교의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행정력이 지금, 우리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학교에.

자율권이라는 것은 창의성이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자율화시키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지시와 감독, 이것은 창의성이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율성을 주되 교육장님들이 각급 학교에 초등, 중등, 보통교육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책임을. 자율은 책임을 바탕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해 보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율을 줬으니까 져라,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할 때는 교육행정이 먹혀 들어가지 않죠, 이게 들어가야 되는 데.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이.....

부산교육이 잘돼 있다고 전국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교육감은 7년간 경력밖에 없는 분입니다, 교육경력이. 회사를 운영했던 분인데 되도록 자율권을 많이 교육장님들에게, 학교에게 많이 주다보니까 새로운 시스템, 아이템이 개발이 돼 가지고 시민들의 의사, 교육계의 의사 이렇게 듣다보니까 새로운 계획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서 부산교육이 최첨단을 이루고 선두주자로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에 자율성을 줘 가지고 거기에 좋은 거 다 추리고, 또 교육장님들도 새로운 아이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계획수립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장님들께서 높은 관심과 의지가 없으면 좋은 교육적 성과를 거양할 수 없습니다.

교육장님들의 관심과 의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계속)

● 의사담당 신현영

오전에 이어서 지역교육청 및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우선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주교육청 박연태 교육장님, 제천교육청 류재영 교육장님, 진천교육청 전재원 교육장님, 괴산중평교육청 연준 교육장님, 음성교육청 신정인 교육장님, 단양교육청 김종근 교육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뵈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고자 자리를 함께하신 지역 교육장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박연태 교육장님, 신정인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된 목적은 지난 1월 12일 제187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교육현장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 애로사항이나 현안문제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 2월 15일 제18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직속기관장님들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며, 금번 회기 중에는 2006년도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계획은 금년 1년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계획이 총 결집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로 교육위원님과 교육장님 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참석하신 교육장님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청 박연태 교육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앞아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충북교육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우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바른 잣대로 우리 충청북도 교육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그를 통한 건설적 대안제시, 그리고 견제 비판으로 우리 충북교육은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성장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께서서는 충북교육을 이끄시며 사랑, 관심, 화합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정성과 노력을 쏟으신 결과 지난해 지방교육혁신 평가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오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취를 일궈 냈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제고로 우리 충북교육은 안정 속에 성장하여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수준을 상회하였고, 부패방지평가 2위 및 교육행정서비스, 행정평가 전국 1위에 올라섬으로써 충북교육은 그 청렴도와 수준 높은 행정력을 거양하였으며, 전국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최우수,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 최다 입상 및 전국 사이버 가정학습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충북교육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보람과 행복, 자신

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토론토교육청과 교육 문화 교류 협약 체결, 인도네시아 정보화 지원사업, 도내 19개 대학과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충북교육이 이룬 이 모든 업적은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에 큰 기대를 거는 성취로 우리 교육가족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금년 충북교육은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를 기치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깊은 믿음과 큰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난 12월 8일에는 학생 외국어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이 문을 열었고, 이어서 27일에는 우리 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충북교직원복지회관 개관식을 가짐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교육사랑으로 꽃피운 결과라 믿어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지역교육을 성장 발전시켜 갈 포부와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육은 한 국가의 발전을 좌우하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적정한 배분을 담당하는 거대하고 소중한 순환국책사업입니다.

세계 각 국의 교육개혁 배경에는 삶의 주체인 인재양성의 목적을 바탕에 깔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복지와 혁신구현을 꼭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양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오늘 이 자리가 지역교육이 거듭나는 뜻 깊은 역사의 자리로 매김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6개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대신하여 굳게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광

박연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와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순서는 충주, 제천,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교육청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교육청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10분 이내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모두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가능한 한 간략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주교육청 박연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주요업무계획보고(별책)

● 의장 고규강

6개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잠시 10분간 휴식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계속)

● 의장 고규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특색사업이나 주요업무계획으로 봐서 학력제고 및 영재교육과 효사랑을 중점으로 한 지역특성과 문화자원을 감안한 특색사업이 선정된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특색사업 현황을 볼 때 충주가 지속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종결된 사업이 잉글리시 커뮤니케이션 활

성화 단계가 끝나고 그랬는데 각 교육청 거의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간평가는 다 해 보셨죠? 2005년도 거.

중간평가 하신 그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종결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는 또 어떻게 내렸는지, 물론 신규사업으로 하신 거는 그 교육장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다 하신 건데 그 기대효과를 봐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사업과 종결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려면 굉장히 시간이 기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학교폭력 관계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우리 학교별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성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학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장님의 역할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교육장님 대표로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충주 교육장 박연태입니다.

생활지도가 저희가 충주 지역에서 작년에 물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금년 3월 1일 명에 의해서 충주교육청 발령을 받고 가장 중점적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생활지도자치.....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 조직 외에 또 아주 발동대 식으로도 학교별로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의 연계, 지원사업 관계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로비를 하면서 그 기관장님 처음 인사 다닐 때도 그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을 해서 다시 5.31 선거 이후에 그 조성되는 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교육사업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충주 중앙중학교가 그 방음벽을 거의 다 해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게 아마 지난 번 충주시의회에서 부결시켜 가지고 지금 예산까지 확보하고도 지금 학습권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

런 반대하는 위원님들을 별도로 찾아 뵙고 이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영용 위원**

다른 교육장님들도 지역 현안에 관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좀더 긴밀히 하셔서 좀더 큰, 우리 아이들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진취적인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셔서 그 한 해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고 저도 함께 조금이나마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글쎄요, 주로 오후에는 특화사업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오전에는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보면은 일단 전체적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주요업무계획이 책자를 좀 내용까지도 전부 한글로 이

렇게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안팎을 한글로 전부 하셔 가지고 선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언론보도를 봤지만은 우리 청주지법에서도 그 문어체를 지양하고 구술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바꿔간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법원이 하고 있는지 알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신뢰를 준다는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지난 제가 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고서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내내 지역교육청에서도 같은 것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고쳐나가실 의향이 없으신지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청도 꽤 많은 분량이 지금 들어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이 매뉴얼 말씀이죠.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충주 교육장 박연태입니다.

그 지금 진옥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미처 제작이 전에 돼 버려서 그 수정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제작하는데 유념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교육청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제가 교육장님들을 자주 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괄해서 그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전공을 중문학을 해서 한자를 비교적 익숙하게 보고 있지만은 우리말처럼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글들을 볼 때도.

그런 면에서 우리 한글사랑관을 또 만들어서 또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신경을 써서 조그만 팜플렛 하나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충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방과후 학교를 이제 지금 운영하고.....지금 완료를 하셨나요?

교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교육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교육부 지정으로 하셔 가지고 그 보고서를 지금 제출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2005년으로 마친 것인지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확인을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러시겠죠.

지금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전부 의제로 삼아서 방과후에 학령기 아동입니다, 보육이 아니고.

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 초·중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특히 학교 마치고 학원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상들 말고 그 맞벌이부부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서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교과라든지 아니면 그 방과후 특기·적성 같은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그런 기반 시설들을,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보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의 의제인데,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도 초등교육과에서도 토론회에 나가서 발표를 하셨는데 충주의 교현초등학교가 연구학교로 2005년도에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활성화 방안에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을 받았습시다.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여쭙보고 싶었거든요.

그 보고서가 있지만은 이후에 확산의 가능성이랄까, 아니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는데요 조금.....

서면으로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 차량, 오전에도 학교와 학원간의 운영의 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끝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 학원은. 그런데 학교는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열세에 있다라고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이 하루종일 가르치시다가 또 방과후 교육을 또 맡으실 때 업무과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이야기되고, 인력배치를 전담으로 해 달라, 이런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범학교라고는 하지만은 특수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역과 함께 충주시청이나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실 때 이것이 좀더 뭐랄까 시범의 단계를 넘

는 실용화 단계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한번 이것을 그려니까 다른 학교에도, 다른 지역에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안 말씀이 있으시다든지 하면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 하고 올해하고 특화사업 같은 경우들은 매우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기대효과라든지,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특화사업에서 교실수업 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심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작년에 비하면은 좀더 심화된 형태일텐데 여기 기대효과라고 나와 있는,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작년과 대동소이한 기대효과를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의 어떤 각 지역교육청의 보고가 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충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교육청 이렇게 동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산 같은 경우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괴산도 많이 바꾸셨다고 하지만은 결국 2005년도에서 심화되는 내용으로써 또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 같은 경우들도 제목만 바꿨다 뿐이지 목적이라든지 현황분석 및 추진방향 같은 것들이 내내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그런 거 저런 형식을 다 떠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특화사업으로 집중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점을 지적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제 사업 처음부터 하실 때 새로 오시는 분들도, 물론 직원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심화면 심화고, 아니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면 업그레이드, 이런 형태의 어떤 진전 과정 속에서 그 계획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내 고향 사랑이라든지 우리 고장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특화사업에 넣고 계시는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만은 학생들은 또 어떻게 보면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만약에 옥천 같은 경우에 중봉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청원 같

은 경우는 계속 손병희나 단재 선생님 같은 경우들은 해마다 학년 올라갈 적마다 계속 되풀이해서 그러면은 강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좀더 깊이 알게 된다든지 또 전문화한다든지 이런 단계적인 고려들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교육청 나름대로의 특화된 부분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라는 하나의 공감대, 아니면 공동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모색이 되고, 또 하여튼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너무 분화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물론 충청북도 도교육청의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교육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하나의 지역적인 공감대 같은 것들은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것이 확대된다면 우리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또 세계인으로서 기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부분들 까지도 조금 더 고려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미의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도자인 분이 교육에 뜻을 두시고 각 학교마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전국의 각 학교에 같은 수준의 악기 교육들을 전부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하나의 전국적인 오케스트라로 그것이 합주되는 굉장히 감동적인 과정들을 죽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까 어디 영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국악기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들이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물론 강사라든지 이런 여건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꿈들도 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역을 강조하다보면 아이들은 맨날 가는 똑같은 장소에 소풍 갑니다.

정말 지켜워서 여기에는 가지 싫은 아주.....외부에서 보면 거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너무너무 식상한 그런 지역으로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외부로 시야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면은 이런 것들을 제시.....

물론 같이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지

만은 자꾸 이렇게 특화 쪽으로 오늘은 집중을 하시다보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 우려들도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그 도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것이고, 또 그렇지만은 일선 초·중등 학교에서는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비정규직의 인건비가 따로 명목이 정해져서, 책정돼서 내려가던 것이 그냥 일괄 총액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사서보조가 365일 곱하기 일당 해서 임금이 책정이 되는데 일선 학교에 내려가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데 사업을 하기 때문에 365일 대신에 애네들은 방학 때 나오지 않으니까 245일로 해라,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2월말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교육청에 오시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속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액수도 굉장히, 받는 액수들도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는데, 물론 그것이 방학 때는 없다든지 또 하루종일 매여 있는 선생님과는 다르다든지 이런 업

무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편법 운영이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이 기대했던 부분이 작년에는 365이던 게 올해는 245일로 책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의 삭감이 온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안해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장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그래서 오전에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별로 각 직종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는 그 기준표를.....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받으셔서 2월달에 어떻게 이제 2006년도 계약을 마치셨는지에 대해서 각 교육청별로 디스켓으로 하셔서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독려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그것이 전혀 설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몇 개의 학교를 보고.....

결국 작년에 365일 하던 분이 245일로 이렇게 줄여 가지고 올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각 지역교육청에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그 다음에 불법찬조금에 관련해서 학년 초에 지금 이제 뭐 회장이라든지 학생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은 부모들이 암묵적으로 압력을 받는다든가 학교의 발전기금을 내라든지 이런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굉장히 장시간의 TV프로그램이 방송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 지역은 제가 여쭙보면 맨날 없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적은 아주 산골로 들어가면 거의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조금 큰 중소도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올 초에, 3월초에 하실 예정이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학산초등학교하고 음성의 대소중학교, 그 다음에 충주의 충원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교사단체의 부정적인 성명서를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갔을 텐데 자세한 어떤 교원평가 실시의 양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육청에서 관련된 학교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불법 학교찬조금이라든

지 이런 것을 또 지나친 선생님들이 체벌이나 폭언,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하고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그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원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범실시를 가지고 이제 문제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시를 원천 반대하는 교사들이 작년 5월, 6월경에 아주 맹렬하게 됨으로 해서 그 큰 학교에서는 시행을 하지 못한, 그래서 작은 학교만 시범대상으로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그 시범실시 브리핑 자료에 대한 멘트가 전부 이래저래 해서 시범실시가 부실하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밀어부치기 식으로 가는 수순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부실하게 된 원인제공을 저는 교사들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현장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전 국민이 80%가 넘도록 이것을 요구하고 있을 때 이것을 시범실시를 더 확대하든가 아니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이 좀더 심화되어 가지고 학교현장에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해당 지금 시범학교

의 교육장님들께서는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교육청별로 일이 다 정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자료만 많이 가지고 제대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그런 선에서라도 저기해 주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단양 같은 경우들은 평생학습도시는 2006년도에는 해당이 없는지요. 2005년도에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 단양교육청 교육장 김종근

평생학습도시는 한번 정해지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제천하고 단양이 지금 지원되고 있죠?

● 단양교육청 교육장 김종근

우리 충북에서는 청주, 제천, 단양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예산도 계속 지원이 됩니까?

● 단양교육청 교육장 김종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연간 예산은 국고 2억이 군청으로 배시가 되면서 주요사업을 군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세부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하면 정

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양에서 아직 평생사업으로 인해서 내려온 돈이 저희 교육청으로 배시된 것은 없습니다, 지원된 거는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 사업이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금 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은 군청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군요.

● 단양교육청 교육장 김종근

예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긴밀하게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라든지 혹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단양교육청 교육장 김종근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세울 때 같이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지금 2005년도에 선정이 되고 2006년도 1회 추경 반영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지시면은 저한테 문건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단양교육청 교육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답변은 안 들으시고?

아까 뭐 물어본 것 같은데 답변해 달라
고.

● 진옥경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일일이 다 답변
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린 것도
같습니다.

● 의장 고규강

아니 두서 없는데 아까 한 가지는 답변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 진옥경 위원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요, 교육장님들께서 뒤에 정리를 하신 부
분이 있으시면은 각 교육장님별로 말씀
을 해 주시죠?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
시고요.

● 의장 고규강

답변하실 교육장님은 답변을 해 주세
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충주 교육장 박연태입니다.

방과후 학교 문제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서면으로 전부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교원평가 시범학교가 저희 관내
에 충원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사
실상 저희 관할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교육청도 답변이 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 제천교육청 교육장 류재영

디스켓으로 비정규직, 그거는 보내드리
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
다.

진천이나 괴산에 제가 갔을 때 양성평
등 차원에서 남학생을 앞에 출석부 배치
하고 뒤에 여학생 배치한 사례나 이런 것
들 하면서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그렇고 교육장님
들께서 2006년도 새학기 되면은 그것들을
지도·감독하시겠다고 했는데 각 교육청
에서 그런 지도 공문이 나간 일이 있는지
요? 다 저기 하셨나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학기 시작 전에 연말쯤 해서 지난번에
교장협의를 통해서 전달을 다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예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요 올해 3월 이후에 그 변동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각 관내의 학교, 초·중학교의
명단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남학생 앞에
여학생 뒤에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시
정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표기를 해서 가
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은 변동사항을 제
가 일목요연하게 제가 알 수 있지 않겠는
가. 말씀은 하셨지만은 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각 교육장님별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죠?

(관계관 석에서 “예”하고 말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너무 여러 가지를 하셔서 교육장
님들께서 전부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테
고 주로 자료들이 많이 있고, 제가 당부
말씀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그냥 답변하
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네, 이상일 위원입니다.

충주 교육장님하고 음성 교육장님은 부
임하신 지도 얼마 안되셔서 이렇게 훌륭
하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교육청별로 제
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부분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청에서는 노력 중점 사업으로
기본 학습력 제고를 내걸었습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통해서 읽
기, 쓰기, 말하기 등 기초학력을 평가하
고 또 기초학력학급 담임을 책임지도제로
운영을 해서 기초학력을 신장하겠다는 애
기를 하셨습니다.

참 영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초학력을 가르친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
요한 일입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비교해 보셔 가지
고 해마다 이런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수
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줄어드는 건지
이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금년도 학기
초에 이것을 학교별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기 때
문에 중등 학교에서 정확하게 이 학생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제 학교에서 평가를 해 보면 애가 정

말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사람보다 훨씬 아이큐가 낮은 동물도 계속 반복학습을 시키면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초학력 그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특기·적성 교육 위주로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특별히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을 남아서 책임지도를 해 가지고 충주교육청 뿐만 아니라 여기 6개 교육청 전체가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 대폭 줄어들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시면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충주 교육장 박연태입니다.

학교별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책임지고 1 대 1 멘토링제까지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가지고 지금 일부 학교

만 제가 아직 파악했습니다만은 일부 학교 파악해서 아주 부진한 학생이 있느냐, 정말로 참 그 학생이 읽고, 쓰고, 셈하고 이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해야만 되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활짝 웃고 또 정확히 말하고, 그 다음에 정성들여 쓰고, 그 다음에 힘차게 걷자, 이런 제가 내걸고 아주 기초학력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것을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걸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상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그리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상당히 관심 있게 여기다가 적시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교현초등학교에서 이질이 발생해 가지고 아주 몇 백 명 학생이 감염이 되고 천 명 넘는 학생들을 전부 역학조사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먹는 물 관리, 특히 그 식단을 잘 때 가능한이면 식중독 발생할 수 있는 그 식품, 뭐 하절기에 조개류라든지 또는 어패류 이런 부식

하기 쉽고 독성이 강한 것은 식단에서 가
능하면 뺏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
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충주 교육장 박연태입니다.

지금 이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학교급식 운영의 질 향상을 위
해서 급식용 식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DNA검사를 20개교를 해 가면서
그걸 앞으로 그 부패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식단에서 빼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사람
이 하는 일이고, 수백명 먹이다 보니까
왜 사고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하
면 그런 급식사고가 줄지 않을까 해서 말
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 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특색사업으로다 책 읽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독서교육 강화, 독서교육
의 활성화를 특색사업으로 해 주셨습니
다.

그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는 2007년까
지 도서실이 없는 학교는 도서실을 설치
를 하고, 또 있어도 부실한 데는 리모델
링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2007년까지 그 사업이 마무
리 되겠습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류재영**

제천 교육장 류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초등이 50% 진행이 됐고요
중등이 44%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도에서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데 올해에도 책정이 아직 안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많아야 초등이 2, 중등이 2, 이
렇게 하면은 2007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거를 일선 교육장님이 역
지로 하실 수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특색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년 3월부터 주5일제 수업
을 확대해서 월 2회 실시를 하지 않습니
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근
래 우리나라에 양극화라는 얘기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에도 양극화, 결국은 주5일
수업을 하는 날이 많아지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녀들은 뭐 부모님들이 데
리고 해외여행까지는 몰라도 바닷가로든

지 공원으로든지 데리고 학습을 떠날 수도,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 또는 결손가정, 또 맞벌이 부부로 도저히 아이들을 어디 데려갈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등교 희망을 하는 학생들은 등교를 시켜서 지도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데 선생님들 쉬셔야 되는데 나오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학교에 갖춰져 있는 도서실이라든지 또는 컴퓨터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제천교육청 교육장 류재영

제천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제로다가 이번 토요일은 어느 선생님이 나오시는 게 다 있습니다, 담당이.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이 나오면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하든 또 책을 읽히든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남들 쉬는 토요일날 출근하시는 선생님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 제천교육청 교육장 류재영

초과근무가 들어가는 거죠.

● 이상일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

까지도 세밀하게.....

● 제천교육청 교육장 류재영

에

● 이상일 위원

그래 가지고 특색사업 잘 이룩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도서실이 좀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천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가모 운동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가모 운동이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랑거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마구 쓰고 버리고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물자를 절약해 쓰는 습관, 아끼는 습관, 이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저희들 다닐 때만 해도 몽당연필이 있어서 모아 쓰고 그랬는데, 요 근래 제가 일선 학교에 가 보면은 복도에 있어야 할 아가모함이 창고에 가 있고, 또 기능직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쓰레기 봉투에 참 아까운 물건이 많이 담겨져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학습준비물이라고 그렇니까

왜 2만원씩 줘서 물건을 다 주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결순가정, 어려워서 이런 걸 사 쓸 수 없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잘한 일인데 그것을 필요치도 않은 것을 막 갖다놓으니까 쓰다 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것은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학교에서 특별히 이런 학습준비물 사용이라든지 아가모 운동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천교육청 교육장 전재원**

진천 교육장 전재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현장에서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 그 아가모 운동이 그 전개될 때에 그 패턴하고 지금의 패턴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의식 자체도 그렇고, 경영자의 의식 자체도 그렇고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육에서는 그렇게 조령모계식으로 되서는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 뭐 아가모 운동으로 많이 추진하던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라든가 체육복 물려주기 운동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초창기에는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졌었

는데 지금에 와서는 학부모들의 의식이나 학생들의 사고가 달라져서 이것을 남이 입던 옷을 내가 왜 입느냐, 나도 그 옷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물려준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리 깨끗이 빨아서 주더라도, 나도 이런 거 정도 살 경제적인 능력 있다, 부모들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런 경향, 그런 것 때문에 교육하기도 힘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활동으로써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 빈병, 또는 폐휴지 관리하는 거, 이것이 실제로는 거기에 투자된 노력하고 산출된 효과를 검증해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애들에게 그런 경제교육이라든가 또는 물자절약 교육을 갖다가 습관화시킨다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커서 하고 있는 거지 학교에서 또는 학급에서 나오는 폐휴지 모아 갖고 거기서 생기는 돈은 뭐 경제적인 이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미미하고 오히려 그런 폐휴지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 인건비라든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그것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효과로 보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이고 이래서 일선에서 지금 갈등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는 1만원이나 2만원을 잃더라도 교육적으로 10원의 소득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에서도 교육적인 활동으로 적극 추진해야겠다는 이런 관점으로 지난번 교감회의, 주요업무 보고 회의에서도 한번 그런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선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요, 이게 참 뭐 가치관의 차이인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경제교육을 시키고 왜 아끼는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요 근래 젊은 사람들 중에 신용불량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 생각으로는 소득이 없으면 안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처럼 카드를 긁고 빚을 지고 씁니다.

누가 어떻게 해 주겠죠.

결국은 우리가 어려서 아이들을 교육 잘못 시킨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쌀 한웅큼이 떨어지면은 그걸 다 줍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분 걸려서 쌀 한 줌 주워서 우리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먹는 음식을 소중히 먹는다든 생각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물론 이제 빈병, 폐지 팔아야 돈 몇 푼 안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물건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생각, 아껴쓰는 생각,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경제교육의 일환으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감 되시면 좀더 이 아가모 운동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괴산중평교육청에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유아교육의 소중함을 모두들 말씀을 하고 정부에서도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선 공립 유치원에 가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통학버스가 없다, 뭐 여러 가지 해서 사립유치원과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음성 수봉에서도 유치원 규모는 상당히 큰데

원아가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연준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연준입니다.

저희들 유치원 관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버스가 거의 다 지금 있기 때문에 학교버스를 활용을 해 가지고 공립유치원 학생들도 등하교를 지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같이.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원 원아를 태우고 와도 됩니까?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연준

예

● 이상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초등학교 버스를 중·고등학생은 안 태워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버스로 유치원 아이들 실어 날라도 괜찮습니까?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연준

예, 저희들 괴산증평교육청 관내는 전부 병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병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과 같이 동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서 기왕 그렇게 국가가 유치원 교

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종일반 운영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통학버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래서 유치원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성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는 토요 동아리라고 하는 좀 색다른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결국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 휴업일, 이것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겠느냐 하는 거에 마을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이제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는 토요 동아리 활동 정보 강화 이래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토요일 날 나 홀로 집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력저하를 방지한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잘 결실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음성교육청 교육장 신정인

음성 교육장 신정인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송초·중학교 있을 때 그 학생들을 갖다가 그 마을별로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형제, 누나, 자매들

이 이렇게 그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향우반, 애향단 운영과 같이 그것을 어떻게 결연을 맺어서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지금 주5일제가 되다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토요일 학교에 나오시는 것을 기피하시고, 또 학생들도 지금 맞벌이부부라든가 또는 결손가정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를 딱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방안 해소책으로 저희들은 이걸 특화사업으로 내걸어 봤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마을이 있는 노인, 어르신네라든가 또는 이장, 반장 이렇게 책임제로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사전에 지도를 해 가지고서 그 마을에서 우애가 돈독하게, 그러면은 따돌림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교육장님, 이거 잘 좀 실천하시고 1년 후에 그 평가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나눠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음성교육청 교육장 신정인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단양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단양교육청 혁신과제를 학습권 보호로 학력제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걸로 각종 행사 통·폐합, 또 일과 중의 행사는 지양을 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단양군에는 군이 작으면서도 축제가 참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덟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학생들이 동원이 안되면 행사가 안되는 것 같은데 행사 때마다 학생들을 동원하자니 수업결손이 생기고, 그런 데 협조를 안하자니 지역사회로부터 어떤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테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 단양교육청 교육장 김종근

단양 교육장 김종근입니다.

우선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학습권 보호로 학력제고를 하자고 협의를 했었는데 다시 3월달에 혁신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혁신과제는 나눠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새로 작성한 별지내용에 기왕에 작성됐던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역행사 참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은 지역이 좁고 학교수가 아주 적는데 행사가 많습니다.

제가 2004년도 2학기부터 2005년도를 1학기까지 보니까 연간 학급단위, 전교생, 이렇게 해서 동원 요청이 온 것이 25번입니다. 25번이면 한달 수업일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군에 전체적으로 하는 큰 행사 중에서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말하자면 그림그리기라든가 문예활동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행사를 위해서 소위 동원되는 것은 하지 말자. 또 지역행사가 교육적이라 하더라도 미리 통보가 돼서 학교에서 교육계획에 흡수가 돼 가지고 계획적인 교육활동으로만 참여하자. 그 이외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단양 중학교 교장 있을 때부터 단호하게 거절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1년 지나면서 행사가 학생들 가지고 하면 안되겠다 것을 느끼고, 저도 지방자치단체장, 기관 자치, 사회단체들한테도 행사를 위해서 학생은 부르지 말라, 아주 이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학생의 학력이 떨어지면 후손들이 못 살게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하여튼 혁신과제로 학력제고, 학습권 보호 아주 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초지일관 밀고 나가셔서 각종 행사 때 많은 학생들이 착출되고 동원돼서 오는 수업결손으로부터 학습권을 적극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회의계속)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송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교육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관계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차피 오늘 일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한 거 하나씩만 교육장님께 여쭙보겠고, 한 가지 끝으로 제안하고자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주 교육장님, 업무파악도 되시고 여러 가지 바쁘실텐데 아까 말씀 가운

데 지난해 충주 관내에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고심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생활지도 사안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이고,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우선 관내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 관내에서 교육장님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까지 돼 있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하고 직접 지시 행정지시 명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학교에 생활지도 사안에 관한 거, 관내에서 모든 문제는 고등학교도 교육장님의 지시를 받고 교육장님이 그 업무 파악해서 보고도 되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교육장님에게 그런 관내에서 일어나는 학생 사안에 관한 것, 폭력 등등 그런 것이 교육장님에게 고등학교까지 다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었는가 하나 여쭙보고 싶네요.

교육장님, 간단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충주 교육장 박연태입니다.

교외생활지도 위원단을 구성해서 그것은 합동으로 다 지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초·중만 관할을 지금 하고.....

● 송대헌 위원

좀더 핵심적으로 합시다.

충주고등학교 예를 들면 무슨 사안이 벌어졌다, 거기에서 급한 사안일 때는 본청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고, 우선 시스템을 본청에 직접하는 것이지.....

●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본청에 합니다.

● 송대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시스템이 이원화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원화가 아니고.

●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이런 문제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국장하고 그 무렵에는 그 시스템이 교육장님한테 생활지도에 관한 한은 다 줬습니다.

그 지시하고 대처하고 능력하는 부분을 줘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왜냐하면은 본청에서는 먼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고등학교 사안이 벌어졌다, 교육장이 내 소관 아닌데 내가 뭐 거기 구태여, 본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는 어떤 데는 사고보고도 늦어지

고 교육장님은 모르는 사안들이 관내에서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이런 기회에 교육장님들 문제제기를 삼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대로 고등학교는 직접 도교육청에서 모두 지도 감독을 하니까 거기서 한다, 우리 교육장님, 관계없다, 집에 가서 쉬어도 되겠다 하는 거하고.....

그 부분만은, 생활지도만은 교육장한테 위임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등학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런 시스템 문제는 다시 한번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해서 여쭙봤습니다.

생활지도 쪽에 27쪽인가요 교육장님, 27쪽에 사랑이 넘치는 학교조성이라고, 아까 생활지도 말씀하시길래 그 페이지를 봤어요.

다른 데는 다 검토 못 했습니다만은 27쪽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조성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 학생사랑 3다3무 운동 전개, 3다 운동, 3무 운동, 사랑의 대화방, 이메일 쪽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함께 풀어나가는 생활지도 해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전담교사제 운영해 놓고 1 교 1 전담교사, 그런데 사실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1 교 1 전

담교사라는 지정을 하고 책임을 준다는 개념으로 저도 압니다만은 생활지도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전 교사가 전담교사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서부터 모든 선생님들이 전담교사화 되어서 이것을 내 자식처럼 해도 그래도 어렵습니다. 손이 부족합니다.

물론 가장 기본은 가정교육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어려서부터 바른 품성과 인성을 기르도록 하면 탈선행위가 줄고 하는 가장 1차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학교에 맡긴 이상 담임선생님 아주 부모 이상의 2차적인 책임자입니다.

하나하나 돌봐보고 그 아이 품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담임선생님이십니다.

그 분들이 애들을 보살피면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충 뉘앙스는 압니다만은, 무슨 뜻으로 했는지 압니다만은 이 표현대로 하면은 전담교사 운영하는데 1 교 1 전담교사, 옛날에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생활지도주임, 요새 부장인가요, 아주 싫어해요. 구진 일이라고 해서, 3학년 담임도 싫어하지만은 생활지도는 맨날 사안만 내고 별받기 싫어하는데누가 얼짜 좋다고, 나 생활지도 전담교사 하겠다고 나설 것 같지 않습니

다.

이 표현이 어떤 뜻으로 했는지 대충 이해는 합니다만은 전 교사가 생활전담교사가 되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충주 교육장 박연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기 표현은 위원님께서 짐작하신 대로 책임제 있게 관리·계획·통제를 좀 맡아서 하는 부분적인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담임이 아주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지도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 **송대현 위원**

그 사람이 전담교사입니다, 사실은.

●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예, 그렇습니다.

● **송대현 위원**

그런데 이 계획서 상의 표현은 잘못하면.....

우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 뉘앙스를 아는데 전혀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딱 보면은 ‘야, 이거 이상하다.’ 하는 감을 느낄 것 같아서.....

아까 생활지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살펴 봤습니다.

우리 애쓰시는 교육장님, 생활지도에 잘 해서 아이들이 바로 클 수 있도록 해야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 교육장님이신가요?

요 전에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부모가 그대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천도 학원이 많을 거요. 선수학습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초등학교에서도 선수학습, 뭐 더하기, 빼기, 읽기, 쓰기 정도는 익혀 가지고 가야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따라가지 그거 하나도 모르고 하면 어렵고.

그런데 어떤 고집스러운 학부모가 한분이 교육자 출신이었어요. “야, 너는 절대로 학원 다니지 않는다, 학교 공부만 열심히 들어라, 정신차려서 선생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면은 무슨 학원이 필요하냐. 내가 경험으로 봐서는 그게 첫째다.” 학교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고집스럽게 초등학교, 중학교, 한 번도 영어나 수학을 학원이나 과외를 시킨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곧잘 중학교 상위그룹에 따라 갖대요. 상위그룹으로 중학교까지 공부를 잘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애가 헤매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도저히 학원에 다녀온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

서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그 선생님이 교과 선생님이 이런 정도의 부분은 학원에서 이미 다 배워왔다고 생각하고 캔슬하는 거예요, 생략을 하고 지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읽기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셈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자세하게 안가르칩니다. 유치원에서 하고 왔으려니 하고 안 가르칩니다. 그래도 그나마 따라가는 모양이에요, 초등학교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 그렇게 잘하던 아이가 점점 성적이 떨어져서 결국은 그 부모가 바라던 대학을 못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를 학원을 안보내서 망쳤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가치로 받아들여야 될 건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하면 충분하다, 학원이라는 사교육비 이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너 학원가라, 학원 가서 열심히 배워와야 돼” 갈등이 오잖아요.

그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교과담임이, 이 부분은 애들 한 80%가 학원에서 배웠으니까 그거 캔슬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거를 지도하느냐 이런 갈등이 오겠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사회에 잠재합니다.

학부형들 집에서 공공연히 이야기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대책이 수준별이라는 거.

지금 우리 교육장님, 아까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니까, 10쪽인가 교육과정 운영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늘 되풀이되고,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걸로 입막음합니다. 애들이 수준별로 해서 능력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식 수업을 한다, 이동식 수업을 해 가지고 영어 잘하는 사람 A, 수월, 우수반 뭐 중간반, 못하는 반 나눕니다.

또 한 군데 초등학교 물으면은 이동식 수업하기는 좀 어렵고, 학급 내에서, 두 번째 항목이죠, 두 번째 써 있는 심화보충형 교과의 학급 내 수준별 협력학습. 학급 내에서 요 분단한테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주고, 요 분단한테는 보충학습 문제를 주고 토의해라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논리상으로는 참 그럴 듯 합니다.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춰서 못 했던 애들이 협력이 돼 가지고 하고, 분단에서는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대로 해서 더 심화학습 하는, 이게 현장 선생님 얘기 들어 보니까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요, 어렵다 이거예요. 교과를 두 가지 써야 되고 자료를 두 가지 써야 되고 실제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도 늘 이게 대안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학력의 격차라든가 이런 문

제를 저기하면은 이동식 수업, 수준별 협력학습, 분단학습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천 교육장님, 이거 두 번째 것이 의심스러.....

이동수업은 잘 안되는 거 알고요 그건 뭐 이동해서 학급 내에 일곱 여덟이라도 이렇게 가서 애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 잘 안되는 거 알고 있고, 두 번째 협력수업이라는 거 잘 됩니까? 그게 늘 궁금한 거요. 그 실태를 알고 싶어요, 늘 궁금한 거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제천교육청 교육장 류재영

제천 교육장 류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력수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과장님이 대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제천교육청 교육과장 정팔영

실제 학급당 학생수가 교사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 때문에 협력학습이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급 내에 학생들의 수준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실제로도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도안의 차별화를 동원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과제부여나 또는 학습 중에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수준에 따른 적절한 지도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그렇게 되야죠.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소중한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애들도 소중한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쉬는 시간이라도 수준별 문제도 만들고 보충문제도 만들어서 틈틈이 과제를 체크하고 지도도 하고, 인원수가 좀 많은 게 걱정스럽죠.

현재는 이 방안 외에는 별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도.

늘 이야기하면 수준별 이동수업, 협력학습, 분단학습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실제 일선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참 많은 고심을 하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천의 과장님 잘 이끌어 주세요.

● 제천교육청 교육과장 정팔영

예

● 송대헌 위원

다음 이상일 위원님이 했던 아가모 운동에 대한 생각,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상일 동료 위원님께서 했던 그 쌀을 줍는 일 공감이 가요.

교육적인 측면, 물론 진천 교육장님도 교육적인 측면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맞는다, 사회 아이들의 인식이나 구조와 발상이 안맞는 것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호응을 받았던 아가모와 지금은 함도 그렇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는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압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덕목은 키워야 되겠다. 아끼고 가르고 모으는 그 덕목은 키워야 될 정신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안맞는다면 그 대치 프로그램이라도 내줘야 돼요.

제가 뭐 우리 집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우리 5살 손녀가, 무심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쪽 내렸더니 “할아버지 두 사람이 놓고 버려야지 왜 혼자 놓고 버리느냐” 이거예요. 엄마한테 받은 거죠. 왜 혼자 소변 놓고 변기를 내렸느냐 이거예요. 불을 환하게 켜더니, 할아버지 왜 다 켜느냐 하고 스위치를 다 꺼요. 6살배기입니다.

그래 바로 어려서는 됩니다, 어려서. 조기에 시켜야 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 아껴쓰기, 전기 아껴쓰기, 그 다음에 용돈 아껴쓰기, 그래서 저축하기. 만약에 아끼고 가르고 모으는 것이 안된다고 하

면 통이 안된다고 하면 물 아껴쓰는 것이라든가, 전기 아껴쓰는 것이라든가 용돈 아껴쓰는 이런 교육은 꼭 어려서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신용불량자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과거에 안됐던 부분을 굳이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뭐가 됐든 우리가 계승해야 될 정신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특화사업으로 세 가지를 진천에서 선정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특화사업선정위원회에서 잘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그만 뉘앙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특화사업, 특색사업, 노력중점,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우리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아, 이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비중을 뒀 가지고 육성하는 거’ 특화입니다.

그것이 뽑내기 1등은 안되더라도 IT산업처럼 여기를 IT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단지가 특화되는 겁니다.

특색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던 가운데 이 부분만은 우리가 뽑낼 수 있다, 칼라가 다르게 특색이 다르게 이 부분만은 뛰어난 부분이다, 그걸 더 계속

하든지 끝나든지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걸로 압니다.

특화사업, 특색사업 막 혼용되는데 엄밀히 보면 그런 뜻일 것 같아요.

특화사업에 세 가지 선정위원회까지 만 들어서 하고 있는데, 행복한 교실, 바른 품성 함양, 생거진천 향토사랑, 이렇게.....

내년에 특화사업을 하실 적에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만은 진천에 외국어연수원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뉴스를 타고 하다 보니까 원어민이 10명인가 있고 기숙사하고 도내 전체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극소수 아이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학부형들의 관심이 결국 말하자면 원어민하고 직접 회화 쪽에 관심이 많고, 조기에 된다고 하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원어민 교육에 투자도 하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 진천교육청이 가까이 옆에 외국어교육원이 있지만 거기만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도 전체 커버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특화사업 쪽에는 우리 진천에 가까이 원어민 연수원이 있으니까 토요일도 쉬는 일이 있고, 일요일도 쉬는 일이 있으니까 교육장님이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 진천에 있는 유·초·중학생들은 우리 충청북도 모든 학생들보

다 가장 회화를 잘한다, 원어민이라고 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회화입니다, 회화. 그런 쪽에 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잘한다. 이런 쪽에도 특화사업 쪽에 하나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생거진천 향토사랑 같은 거, 아주 진천을 정말로 생거진천의 모범고장으로 교육장님 잘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을 바라는 게 아니고 참고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을 좀 진천교육에서 옆에 원어민들도 그쪽에 많으니까 잘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쯤 절충해 보고 군수나 지방자치단체 보고 원어민을 학급에 둘 수 있도록 돈도 끌어내시고 해서 우리 진천을 가장 우리 충북에서.....

꿈을 작게 그렸네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회화를 잘 하는 진천교육으로 뚝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우리 괴산중평 연준 교육장님. 그 혁신팀이 돼 가지고 사람도 더 늘어났고, 요즘 화두죠.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러다보면 궁극적인 혁신은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교단 현장에서부터 일어나고.....

물론 관에서 하는 혁신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저 바닥에서 일어나야 성공을 하는 것이지 저 중앙부처에서부터 혁

신이 일어나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는 그것은 실패입니다.

아래서 위로 가는 혁신이 되어 되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잘했던 부분은 잘해 나가지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관행을 찾아서 고쳐나가는 것이 혁신이고 그 높이 승화돼서 마음까지 바뀌어서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혁신이거든요.

지금 일선 학교에 혁신 얘기하면은 잘 안먹혀서 공감대가 안돼 있어요.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페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단위학교 혁신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분명히 중요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 혁신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위해서는 그 과제선정서부터 공감대를 이뤄 나와야 돼요. 그냥 교장이나 몇몇 사람이, “야, 우리 이거 혁신과제로 내서 교육청에 보고하자, 그리고 1년 동안 추진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성공을 못합니다.

선생님들하고 진지한 토의 끝에 정말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뭔가. 그 과정들이 있어야 혁신이 성공하는 것이지, 그런 과정 절차 없이 혁신과제 선정해서 학교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래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져.....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괴산증평의 혁신과제 선정이 다 돼 있나요? 지금 학교별로. 실태를 좀 알고 싶네요.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연준

괴산증평교육청 연준입니다.

혁신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현재 청내의 직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자들의 회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노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순방 때도 이 교원에 대해서 우리나라 가장 혁신이 안되는 그런 부서가 이 교육계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사고가 고착되어 있는 것만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변화가 저희들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기도 합니다만은 벌써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 확산기로 접어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마인드 제고는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나름대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 형성, 여러 사람의 의견수렴 이런 것을 거쳐서 혁신과제로 이렇게 선정을 단위학교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요새 혁신이 심사에서도 1등 하면 상금도 크다고 하니까, 상보다도 잘 돼야 할

것으로 알고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그 특색사업 보니까, 내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수업스타라는 게 있어요, 수업스타.

그 다음 교육청도 수업스타가 있는데 어떻게 수업스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됩니까. 어떤 게 수업스타인가 개념이 뭔가를 잘 모르겠어요.

수업스타의 개념을 연준 교육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연준

아이들의 어떤 지도를 할 때 교사들의 지도역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어떤 지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지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송대현 위원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왜 이 우스운 질문을 교육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요, 수업이라고 하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수업이라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교실의 한 장면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칠판에 쓰고 말을 전달하고,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교감이 가는 살아 있는 생명체거든요.

한 장면이 그날의 수업목표를 아이들한테 집어넣어 주는 것은 하나의 살아 있는 생명체인데 그걸 잘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수업목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가장 수업을 잘하는 사람이고, 밀도 있는 수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개 수업스타를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대회에서 1등급인가 상 탄 사람들은 수업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꿈나무라고 하는 체육선수가 가서 뭐 1등을 전국대회에서 하면, “야, 우리 꿈나무다.” 그런 사람들을, 운동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스타를 붙여 줬어요.

꿈나무, 정말 국민 우상이 될만한 사람, 연예인 같으면 스타됐다 말여, 돈방석에 올라 앉았다. 그런데 수업스타라고 하니까 대회 입상 한번 딱 되면 “야, 당신은 수업스타여, 1등급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 학교현장이나 상황이 달랐을 때 과연 수업을 스타 소리 들을만큼 생명체 있는 수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스타의 선정기준이 뭐냐. 차라리 수업의 CEO라면 좀, 최고경영자로서 이렇게 상 탄 적이 있다, 그런데 과연 수업스타라는 것이 나는 늘 거부감이 가요. 학생들한테는 운동장에서 스타라는 것을 붙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잘하는 사람 선정기준이 무슨 입상대회에 가서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당선되면 수업스타가 되는 거예요, 수업스타. 스타라는 말이 당채 공감에 잘 안가는데 지금 이것

은 모든 계획서, 모든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대표성이 용어 하나가 스타입니다.

수업스타 뿐만이 아니고 스타를 다 붙였어요. 스타가 열 가지, 스무 가지는 돼요, 스타 붙인 게.

우리 스타라는 것은 열댓 가지는 될 거예요, 지난해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는 것이냐, 스타를.

이거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 심사숙고해 볼.....

지금 본청의 중등과나 초등과 있으면 내 얘기하고 싶은데 없고 안계시는데, 뭐 우리 수장님들 교육전문가들 아십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스타를 써도 되는 것인가. 여기 번쩍번쩍하는 교육청 앞에 그 형광판에 맨날 수업스타가 번쩍번쩍 빛나는데 그냥 지나치면 모르겠는데 과연 수업스타의 정의가 뭐냐, 그냥 입상하면 수업스타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뭐를 족보를 가진 사람을 수업스타라 한다, 개념정의를 안했어요. 그런데 비단 수업스타 뿐만이 아니에요. 뭐 스타 붙이는 것은 갖다 막 붙이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고 하는 것은 스카 붙여도 되겠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CEO나 굿이 영어를 붙이고 싶다고 한다면, 아니면 다른 용어를 써서 표현해 주

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갑자기 괴산중평 교육장님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당황했을 거예요.

나도 몰라서 드린 거지 괴산중평 교육장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 자신이 수업스타의 개념을 몰라서 여쭙았던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괴산중평 교육장님, 중등과장님 하셨으니까 더 좀 물어봐야겠네요.

올해가 우리 평가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작년에 광역시를 해서 부산 1등 하고 했는데, 이 평가는 이기용 교육감부터 아주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 충청북도 교육수요자들한테 충청북도가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니가 아주 중요하죠. 상금도 푸짐합니다, 그 교육평가가. 그래 교육장님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제가 알기로는 입체평가니까 본청만 와서 딱 평가하고 서류보고 실적 평가하는 게 아니라, 괴산중평 교육장님 좀 한번 가 뵙고 싶다, 괴산중평교육청의 교육현황도 보고 싶다고 그 평가단이 지적하면 괴산중평교육청도 가야 되거든요.

가 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뭘 만들어 내

려고 해야 일정이 작으니까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평상시에 이 보고서 하나라도, 용어 하나라도, 아까 제가 생활지도의 뉘앙스 얘기도 했지만은 신중을 기해서 금년에는 이 보고서 하나라도 우리 교육청에 중앙에서 온 평가단이 들이닥쳤을 적에 설명할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괴산중평교육청에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화사업이 됐든 특색사업이 됐든 한 가지만 내놓으면 우리가 점수를 따는 거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고 대비하고 계시는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 괴산중평교육청 교육장 연준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게 저희들 괴산중평교육청만의 어떤 특색적인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송대현 위원

교육장님 잘 하실 게요. 준비 많이 하시면서 이왕이면 뭘 과장해서 보이자는 게 아니고 잘 담아서 우리가 했던 부분을 그릇에 담아서 포장하지 않더라도 조목조목 해 놓으면, 잘 해 놓고도 우리가 어떨 때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교육장님들도 한번 올해가 평가 해다 하는 것을 상기하기 위

해서 제가 드러왔던 말씀입니다.

연준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몰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괴산중평은요.

다음은 음성 교육장님 현황 파악을 하셨는가 말씀도 잘하고 하는데요, 거기 쪽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특화사업에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토요 동아리라고 하는 것도 하고, 또 바른품성을 지닌 음성학생상 정립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34쪽에는 학생 야영수련활동의 활성화도 있고, 이런 효율적인 생활지도를 위해서 페이지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우리가 생활지도 쪽에서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생활지도는 아이들의 마음 속의 깨우침, 감화를 받아서 어떤 계기에 내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이 모습이 정말로 잘못됐구나 하고 깨우칠 때 아이들은 열 번, 스무 번 바뀝니다. 아주 불량한 아이들도.

그런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음성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하면 꽃동네입니다.

그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같은 데 제가 그쪽 계통으로 들은 이야기는 1년 전에 거기 사랑의 연수원에 1박2일 코스가 있고, 2박3일 코스가 있는데 1년 전에 한 5월인가 6월이 되면 그 다음 해 것이 연수

마감이 됩니다. 제일 많이 오는 데가 통계를 의사국에 조사를 2년치 통계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 다녀간 우리 시·도 간의 연수실적을 요구를 해 왔는데, 거기 가면은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 그저 하루 24시간 드러누워서 밥도 떠줘야 되고 하는 그렇게 거동 부동한 사람, 정신이 이상된 아이들, 여기에 와서 애들이 봉사하고 밥 먹여주는, 프로그램도 별거 아니래요. 밥 떠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보고 머리도 감겨보고 이게 프로그램인데 그걸 1박2일이든지 2박3일 하고 나면 자기 반성을 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런데 이제 들은 얘기 중에 마지막 얘기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충북에 소재한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이 충청북도가 제일 들어오는 수준이 낮다 이거예요, 1년 내에 들어오는 수가 열 손가락 안쪽이래요.

서울 경기고등학교는 7년째 거기를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 신청을 못했는데 하도 교장선생님이 직접 쫓아와 가지고, 거기 우리는 넣어주어야 된다고, 6년간 했는데 7년째 안 넣어주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 빈자리를 넣어주었다고 그래요, 경기고등학교 교장한테. 그렇게 경기고등학교에서는 사랑의 연수

원을 그 프로그램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음성 교육장님 참고해 주시고, 우리 내년에는 음성교육청에서 음성 관내 애들을 인성을 지도하는 데는 그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십사 하는 말씀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보로 제공을 합니다.

단양 교육장, 김종근 교육장님.

아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아주 알차게 짜고 애쓰시는 모습.

늘 단양하면 저 북단에 있고 언뜻 생각 하는 게 그 관광을 지역에서 아주 상당히.....

그래도 지나가고 돈벌이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단양에 다 도시락 싸오고 그래서.

그러나 지역에 있는 학교로써 또 단양의 교육장으로서 우리 단양에 있는 학교를 아름다운 학교로 만드는 것, 아름다운 학교.

앞으로 건물 하나를 지어도 좀 단양에 있는 학교는 그 주변환경하고 어울리는 그 설계, 또 울타리에 나무 하나를 심어도 단양의 풍취와 환경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울타리, 이래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맞도록 단양 교육장님은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그런 환경여건의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돈과 관계되는 문제

지만은 그런 쪽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단
체장한테 좀 돈 좀 더 받아낼 수도 있겠
고요, 또 하나 참고가 될 문제는 한 달에
2번 주5일제 수업하다가 다음에는 네 번
다 신다는 거 아닙니까.

단양이라는 여건이 학원이 있는 것도 아
니고 교육문화 시설이 아주 부족한 곳입
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휴무를 한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마
련해 가지고 토요일을 잘 보낼 수 있을
까, 우리 교육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양교육청 교육장 김종근

단양 교육장 김종근입니다.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읍은 특이하게 1985년에 군소재지
가 집단 이주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건물이 1984년, '85년에
거쳐서 일시에 지어졌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학교도 읍내에 있는 학교는 다 그
당시에 지어졌는데 일시에 질 때 거의 난
립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가들은 작년부터 활발하게 리
모델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양읍 내에 있는 학교는 리모델링을 못하
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게 가꾸야 하는데
단양읍 내 전체적인 건물 환경구조로 볼
때 학교가 제일 낙후돼 있는 그런 실정입
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손질을 많이 해 가
고 있는데, 아름답게 가꾸기까지의 과정
은 못 가고 소위 물 새고 튼 생긴 거 메
우고, 이런 데 급급합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학교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
니다.

두 번째, 토요일휴무일 프로그램은 단양
은 2004년도에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로 지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선정됐는가를 생각해
볼 때 도시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소들이 비교적 적은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센터라든가 이렇게 청소년의
유익한 시설은 학생수, 인구비례로 볼 때
다른 지역보다 넓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
은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선정이 됐다
고 봅니다.

학교에서 토요일휴무제 실시하는 첫 해서
부터 토요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
가지고 학생들을 유인하려고 했으나 중학
교 학생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읍내에 있는

학교는 20명 내지 30명 이런 수준으로 와서 도서실을 활용하고, 또 선생님이 나서서 운동장에 프로그램을 짜서 놀이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 학생들의 참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학생들이 읍내에 있는 PC방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지 않을까 해 가지고 토요일 오후 PC방 학생들 출입은 허용을 하되 거기 가서 놀 박혀 있으면 유해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또 박혀 있는 학생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무일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토요일, 일요일까지 합쳐 가지고 학생들이 아주 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느 학교별로 할 게 아니라 읍 단위, 읍 단위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하나 참고사항으로.....

단양 쪽에 여러 가지,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독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저는 요새 조그만 책도 다섯 장만 읽으면 못 읽거든요, 책을 피니까 안 읽어져요. 교육위원인가 뭔가 하다보니까 책하고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다섯 장인가 읽으면 완전히 꾸벅꾸벅 졸리거든요.

그래 이게 습관이거든요, 습관.

그래서 토요일 같은 날 아주 좋죠. 우리 단양은 아이들이 얼마 안되지만 우리 전국에서 제일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다.

제가 모 얘기를 하나 들면은 어떤 선생님 한 분은 아침에 아이들하고 그 반에서 다른 반은 아닌데 그 반에서 아침에 20분, 30분 선생님도 책 읽고, 아이들도 책 읽는 거예요.

그것을 한 4,5개월 했더니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지 말라고 해도 책을 읽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에 가장 책을 많이 읽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해서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송대헌 위원님,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정정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고등학교 학생 사안발생에 대처하는 문제에서 바로 도교육청 해당과로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교육장 회의 2005년도 11월 그 때하고 중등교육과 공문에서 지역교육장에게 사

안보고를 하고 도교육청 해당 과에 보고 하도록 해서 해결방안을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교외생활지도위원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안이 공동 대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대헌 위원

알았습니다.

다행한 일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답변보다는 권장, 권장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순에 각 지역교육청의 업무 파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번 부임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는 충주와 음성 교육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천교육청에 보편은 60페이지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급식비 지원을 유관기관, 또는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켜주는 이런 행정이야말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부분에서 학생 820명에게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편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계속 지원인가요, 한시적인 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류재영

제천 교육장 류재영입니다.

이것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래서 이것은 농촌지역에 의무교육대상 학생에게만 지급을 하는데 제천 시내에 있는 학생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류재영

면 소재지 지역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청과 조례에서 저희들이 2%해서 6억을 받습니다. 6억을 받는데 고등학교

로 1억 6,000, 저희들이 초·중 4억 4,000을 받는데 그 중에서 원어린이 올서부터 6명이 들어옵니다. 거기 2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영어캠프 여름하고 겨울 하는데 1억 6,000,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한 1억 한 7,8천 되는데 그 중에서도 6,540을 급식비로다 지원을 받아서 면 소재지까지 전원 유치원까지 무상지급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해서 시내 다니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어린이까지 확대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교육청 59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토요 동아리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 2회 토요휴무가 실시되고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서 매주 토요일은 이제 휴무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학교와 사회와 부모 간에 굉장한 관심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토요 동아리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쪽 서술돼 있습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토요휴무제로 인한 수업의 공백이 생기지 않고 생활지도 상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교육청에서도 도입을 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충주교육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어느 지역교육청이든간에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 항목이 우리 11개 지역교육청 모두가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이틀 아래 조화로운 학력제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세부사항을 보면은 어느 교육청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수식어 몇 개만 틀리고 전부 같아요. 아름다운 수식어로만 전부 장식했는데 이러한 수식어 장식보다는 이렇게 하는 방안이 가장 아동들을, 학생들을 갖다가 학력제고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라도 개발해서 글자 그대로 학력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기 보면 학력관리종합시스템 운영,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충북21 추진, 그 다음에 기초학습 부진 학생 책임지도제 운

영, 이렇게 쪽 했는데, 제가 행정감사나 행정질문에 가서 보면은 이 부진학생이 장 마찬가지로.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고 금년도 해서 몇 년 구제를 해서 몇 명 남았다, 또 내년에 가서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학력제고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지역교육청별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또 진단하는 시스템이 전부 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이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글자 그대로 학력제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제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교육장님들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시·군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물어보지 않더라도 출장비나 운영비, 행사비 모든 것이 삭감돼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행정을 잘 하라고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성영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떳떳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들도 자기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이, 학생들에게 지원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물론 여기 지사나 오는 사람들은 공약으로 하게끔 제가 할 겁니다, 공약으로.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신경을 안 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떨어지게 할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할 수 있게끔 제가 유도를 할 겁니다, 반드시.

대신에 기초단체장에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장님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을 하는 길이 우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분들도 선거에 당선되려니까 그 학부모들도 많고 그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도가 돼서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지원은 받지 말고 앞으로 청주시와 같이 지방 학교환경 개

선 지원 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만들든 다음 교육청으로 돈을 보내주면 교육장님들이 학교를 위해서 환경개선에 쓸 수 있는.....

경기도는 도 단위 광역단체 했습니다. 1년에 1,500억 이상씩 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도 많이 있고. 그런 방법으로.....

자존심 상해 가면서 하시지 마시고 몇 몇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교육시책에 전부 창의성이라든가 수월성 교육이라든가 인간성 교육 이런 세 가지 분야가 되고, 나머지 분야는 교육행정에서 환경개선이라든가 무한봉사, 지원조장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우린 행정가니까 지원 조장하는 역할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이고 미래지향적인데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행정가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10년, 20년 후에 이 지구상의 변화가, 사람이 살아가는 척도가 어떤 환경으로 변할 것이냐.

뭐 지식기반사회, 글로벌 시대, 이런 것을 다 예측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기

르기 위해서 우리가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또 수월성 교육, 자기의 특기·적성을 계발 신장시키는 교육을 해 줘야 되겠구나, 이걸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을 하려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은 첫 번째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제천교육청은 독서에 관한 거고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 특화사업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육개혁이라는 것은 교실개혁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질이라는 것은 수업의 방법, 전문성을 얘기하는 건데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것은 제로상태입니다.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국어 과목은 어떻게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는 거냐, 과학은 어떻게 수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지금 세계적으로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전부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학생들에게 칠판에 써놓고 집어 넣어주는 방법은 산업화시대 농경시대의 수업방법

이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그렇게 하도록

이 남부지역에는 그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지역의 교육장님들은 교육의 개혁은 교실의 개혁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훌륭한 아이템을 구상해서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교육재정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 교육부채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서 5조 6,000억의 교육재정 부채를 가져왔습니다.

금년도에 한 6조 7,000억, 12조 내지 13조원의 교육부채를 가져오게 됩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교육재정 부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교육감,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적자원, 우수한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행정권, 여기에 건의를 해서 제대로 고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는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370명이라고 그러는데 폭력사고가 많이 나서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분들은

10원 한 장 학교에서 주는 것도 없고 교통비 달라는 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별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런 분들이 지역별로, 학교별로 있으니까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사람들을 좀 활용해서 가지고 그 분들을 폭력학생이나 어떠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교육장님들이나 가만히 보시면 건의를 하라고 하면 건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교육청 눈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예산이라든가 뭐 학교 어려운 사항.

그래서 교육자라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의에서 정의로, 그렇잖아요? 진리로. 교육자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옳게 얘기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2세 교육은 절단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육자야.

교육자는 항상 잘못되어 가는 것을 항상 바르게 얘기할 수 있고, 항상 바르게 가도록.....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지금 사회가 갈등과 반목, 부패, 불의, 폭력 이런 걸로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좌파.

그러면 왜 이러한 사회가 됐느냐 하는 걸 진단할 때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일부

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육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들도 물들어 갖고 다시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로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뿐이 없는 겁니다.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 새 나라의 새 주인이 될 학생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미래의 희망도 기대도 없을 것 아닙니까.

잘못되어 있어도 사회가,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그런 지도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뭐 드리는 거 없이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좋은 발표해 주셨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충북의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계획수립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장님들께서 높은 관심과 의지가 없으면 좋은 교육적 성과를 거양할 수 없습니

다.

교육장님들의 관심과 의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육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종료)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1명

청주교육청 교육장 노재전,	충주교육청 교육장 박연태,
제천교육청 교육장 류재영,	청원교육청 교육장 신도섭,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옥천교육청 교육장 신영식,
영동교육청 교육장 이명섭,	진천교육청 교육장 전재원,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연 준,	음성교육청 교육장 신정인,
단양교육청 교육장 김종근.	

(별첨 3)

의안번호	제 189 ~ / 호
의 결 연 월 일	2006년 월 일 (제 회)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출 연 월 일	2006년 3월 6일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89 ~ /
----------	---------

제출연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처 분

(단위 : m², 천원)

기 관 명	처분 재산명	구 분	소재지번	수 량	대장금액
영 동 교 육 청	범 화 초 폐 교	토 지	학산면 범화리 748-1	10,700	81,962
		건 물		1,259.05	140,547
		소 계		11,959.05	222,509
괴산증평 교 육 청	이 담 초 폐 교	토 지	감물면 이담리 640	11,432	146,993
		건 물		917.18	212,230
		소 계		12,349.18	359,223
괴산증평 교 육 청	신 풍 초 폐 교	토 지	연풍면 원풍리 439	14,312	245,297
		건 물		730.6	28,983
		소 계		15,042.6	274,280
합 계		토 지		36,444	474,252
		건 물		2,906.83	381,760
		합 계		39,350.83	856,012

3. 제안근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붙임 : 처분 위치도 6부.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2006년상반기			2006년하반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1	36,444.00	474,252				1	36,444.00	474,252
		건물	1	2,906.83	381,760				1	2,906.83	381,760
		기타									
	4. 매각	토지	1	36,444.00	474,252				1	36,444.00	474,252
		건물	1	2,906.83	381,760				1	2,906.83	381,760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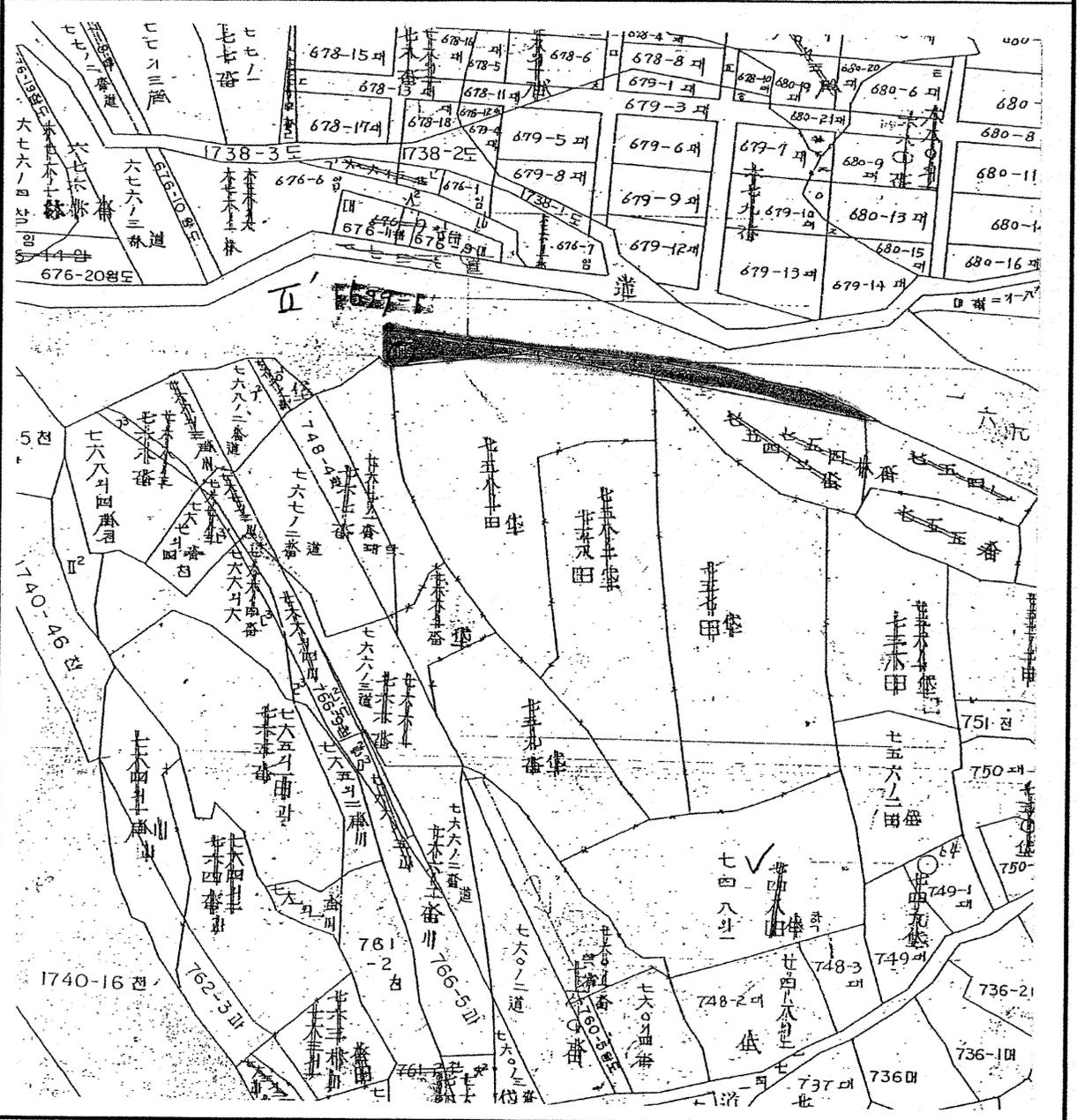
처 분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대 장 금 액	처분 시기	처 분 사 유	매 입 요청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 재 지	수 량					
1	범화초 폐 교	토지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748-1	10,700.00	81,962	상반 기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 토지기부자 2세의 지역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매수 요청	정재수	도면 1쪽
		건물		1,259.05	140,547				도면 2쪽
		소계		11,959.05	222,509				
2	이담초 폐 교	토지	괴산군 강물면 이담리 640	11,432.00	146,993	상반 기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 농협의 지역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매수 요청	불정농협	도면 3쪽
		건물		917.18	212,230				도면 4쪽
		소계		12,349.18	359,223				
3	신평초 폐 교	토지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39	14,312.00	245,297	상반 기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 괴산군청의 조령산 체험 마을 조성을 위한 매수 요청	괴산군청	도면 5쪽
		건물		730.60	28,983				도면 6쪽
		소계		15,042.60	274,280				
합 계		토지		36,444.00	474,252				
		건물		2,906.83	381,760				
		소계		39,350.83	856,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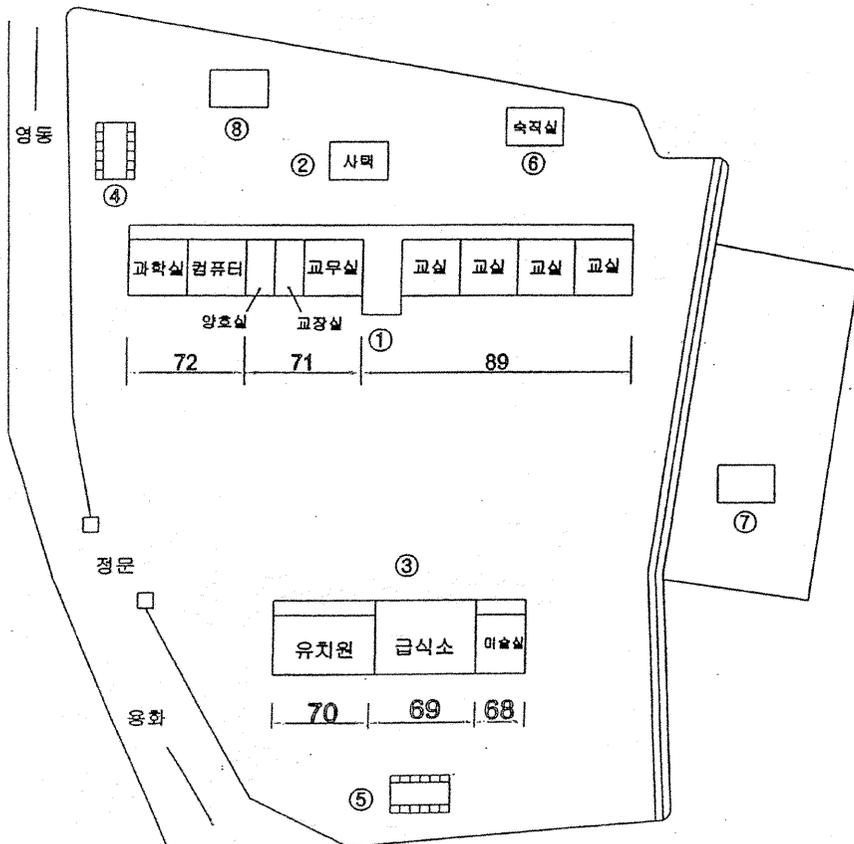
(1) 범화초 폐교 토지 처분 위치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	대장금액 (천원)	사유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748-1	학	10,700	81,962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 토지기부자 2세의 지역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매수 요청
계			10,700	8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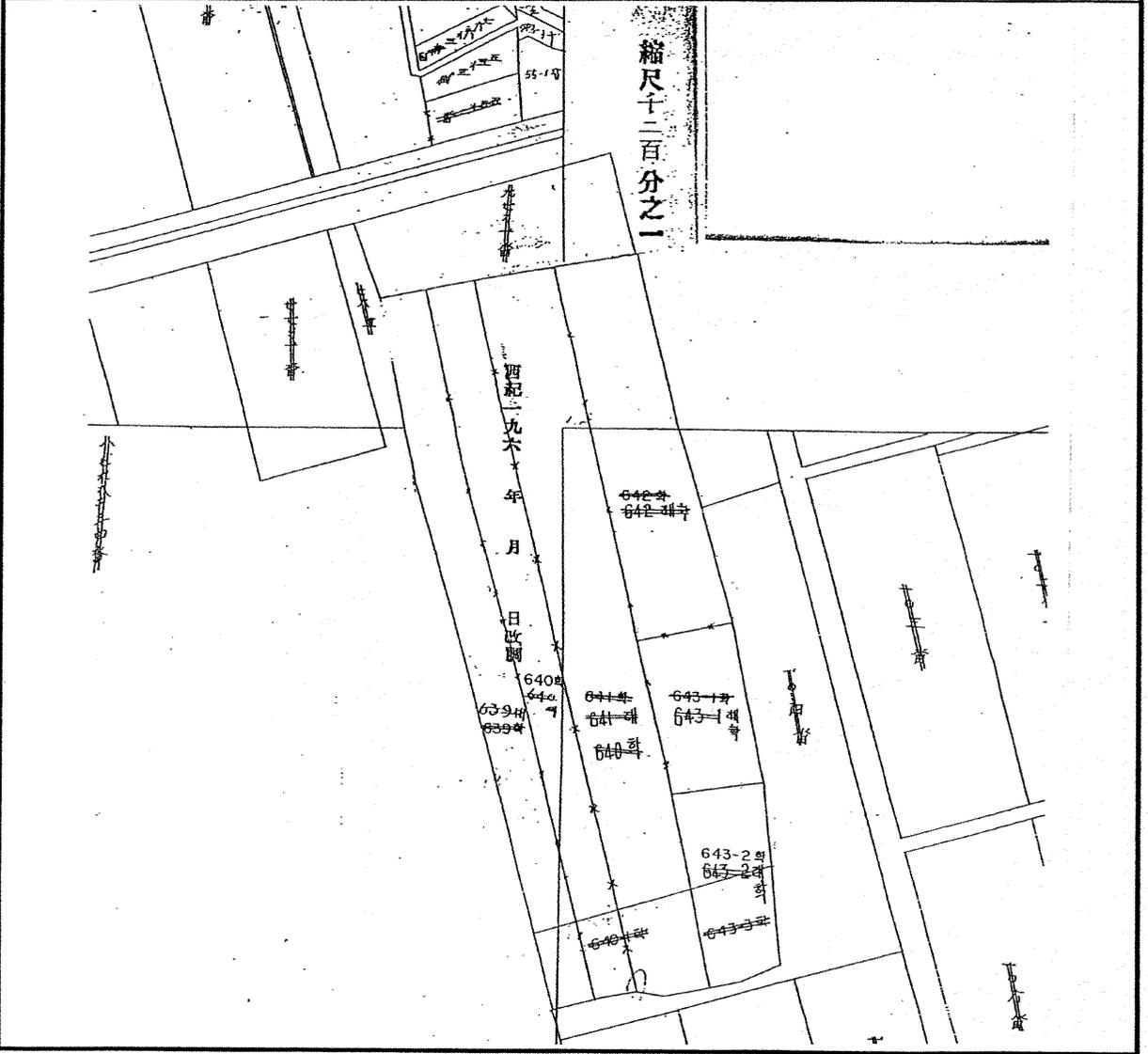
(2) 범화초 폐교 건물 처분 배치도

소재지번	번호	용도	구조	건축 년도	수량 (㎡)	대장금액 (천원)	사유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748-1	1	교사	시벽슬	1971	619.10	82,539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 토지기부자 2세의 지역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매수 요청
	2	숙직실	시벽슬	1984	18.36	7,072	
	3	교사	시벽스	1970	404.96	10,770	
	4	화장실	시벽슬	1982	31.00	7,249	
	5	화장실	시벽슬	1971	46.20	1,138	
	6	창고	시벽슬	1986	40.00	2,244	
	7	사택	시벽스	1989	49.67	12,873	
	8	사택	시벽슬	1990	49.76	16,662	
계					1,259.05	140,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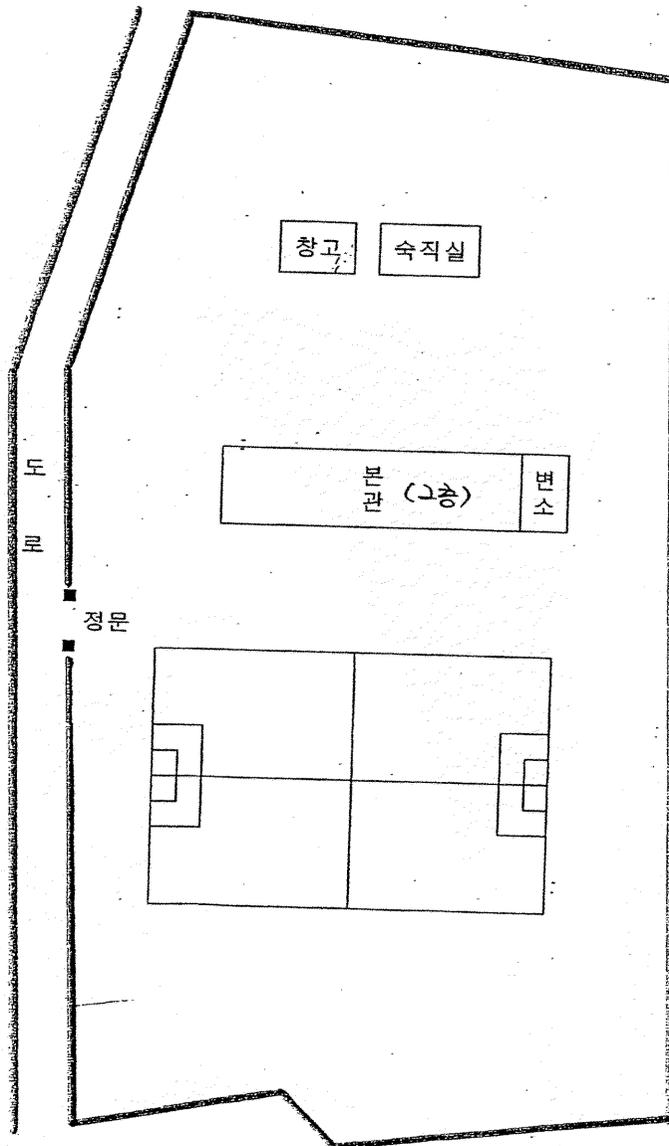
(3) 이담초 폐교 토지 처분 위치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	대장금액 (천원)	사유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640	학	10,677	137,733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 농협의 지역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매수 요청
	643-2	학	537	6,927	
	55-3	대	218	2,333	
계			11,432	146,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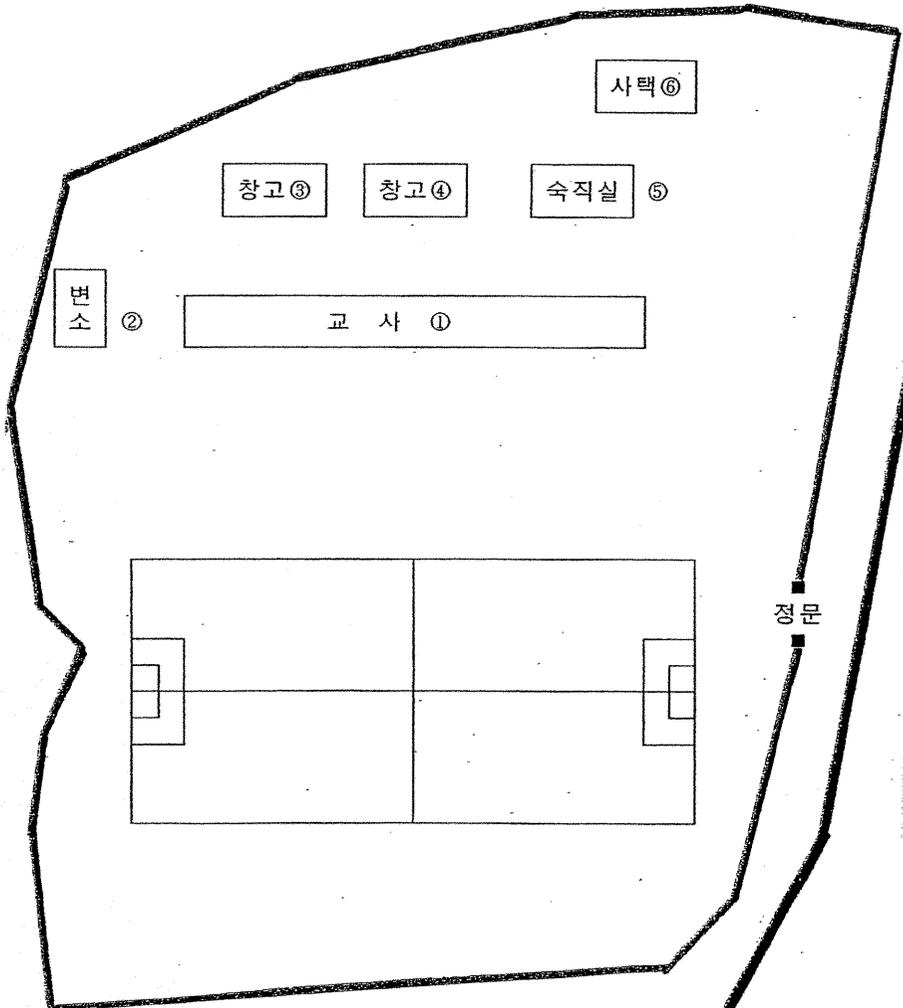
(4) 이담초 폐교 건물 처분 배치도

소재지번	번호	용도	구조	건축 년도	수량 (㎡)	대장금액 (천원)	사 유
괴산군 강물면 이당리 640	1	교사	철콘	1971	699.18	169,108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 농협의 지역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매수 요청
	2	숙직실	시벽슬	1975	56.00	3,450	
	3	창고	시벽슬	1984	57.00	7,272	
	4	화장실	철콘	1986	105.00	32,400	
계					917.18	212,230	



(6) 신풍초 폐교 건물 처분 배치도

소재지번	번호	용도	구조	건축 년도	수량 (㎡)	대장금액 (천원)	사 유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39	1	교사	시벽슬	1966	584.40	17,9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 괴산군청의 조경산 체험 마을 조성을 위한 매수 요청
	2	숙직실	시벽슬	1971	36.00	2,554	
	3	사택	시벽슬	1981	43.20	5,817	
	4	창고	시벽슬	1978	17.00	642	
	5	창고	시벽슬	1978	33.00	1,259	
	6	화장실	시벽슬	1969	17.00	760	
계					730.60	28,983	



(별첨 4)

의안번호	제 189-1 호
의 결 연 월 일	2006년 월 일 (제 회)

2006년도 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발 의 자	송대헌 교육위원외 6인
발 의 연 월 일	2006년 3 월 16 일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189-1호
----------	---------

발의연월일 : 2006. 3. 16.

발 의 자 : 송대헌교육위원외 6인

1. 수정이유

○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범화초 폐교 재산 처분에 대하여 현장 방문 확인 결과 본 재산은 국선도법연구회 이사장 모경숙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2003. 3. 1부터 2008. 2. 28일까지 5년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의 요구로 2006. 2. 28자로 계약 해지 되었는데,

○ 현재 본 재산을 세계국선도연맹 영동 국선도교육원 대표 최낙규가 계속 사용하고 있어 교육청과 점유자와의 협의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회기중에 심의·의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범화초 폐교 토지 10,700㎡와 건물 1,259.05㎡에 대한 처분은 금번 회기 중에 보류

3. 수정안 : 따로 붙임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범화초 폐교에 대한 토지 10,700㎡(81,962천원)와 건물 1,259.05㎡(140,547천원)에 대한 처분계획을 보류한다.

